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원시 신화 기호 및 이미지 연구

-본인의 조각을 중심으로-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엔 칭

# 원시 신화 기호 및 이미지 연구

-본인의 조각을 중심으로-

김 성 복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엔 칭

# 인 준 서

엔청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10월

심사위원장 정정주 (서명 또는 )  
심사위원 김성호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조혜정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김성복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김성복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조각에서 사용된 신화, 원시 및 기호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조각과 조각 도형의 조합 형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대 미술에서 신화와 원시 요소는 예술가들이 현대사회에 대한 성찰이며 그들이 인류 집단의 무의식을 탐색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통해 본인의 조각 작품의 창작 이념을 살펴볼 수 있다.

제1장에서는 현대 미술에서 사용된 신화와 원시 요소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들은 특수한 언어로서 현대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발굴하고 표현하였다. 모더니즘과 원시주의는 전통적인 창작 방식에 도전함으로써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표현 기법과 주제 선정의 방향을 제공하였으며 초현실주의 조각과 원형은 독특한 시각 언어를 바탕으로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류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밝혔다. 현대 조각의 신화 기호 사회 현상과 인성에 대한 예술가들의 깊은 이해와 비판을 표현하였다.

제2장에서는 칼 융과 노스롭 프라이의 이론을 중심으로 집단무의식, 원형 및 신화 비평에 대한 그들의 관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융은 집단무의식이 인류의 심리 활동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집단무의식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원형이 인간 사유 및 행위의 기반이라고 인식하였다. 프라이는 문학비평의 시각에서 볼 경우, 원형과 신화는 문학작품의 심층적 의미를 제시하는 핵심으로써 문학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제3장에서는 마리노 마리니, 권진규, 호안 미로, 우고 룬디노네 등 예술가들의 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들이 필자의 작품 창작에 대한 영향 및 필자에게 준 계시에 대해 기술 하였다. 이상 예술가들은 작품 속의 신화 기호를 통해 정신세계 및 감정세계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였고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마리노 마리니와 권진규의 작품에서는 신화 기호에 대한 이해를 나타냈고 미로는 작품의 기호를 통해 순수 자연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였으며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은 원시 기호를 현대사회에 융합시키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본인의 미술 작품과 원시 조각, 아프리카 조각, 중국 한나라 시기의 석조 작품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인의 미술 작품에도 신화와 기호 요소가 들어 있는데 이러한 예술적 언어를 통해 인류, 자연 및 사회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산해경(山海經)식의 이미지-서술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결합, 동물-동물 결합형 및 기호와 물질의 결합 등 세 가지 표현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처럼 독특한 표현 방식은 본인의 작품 창작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과 표현 기법을 제공하였으며 인성의 복잡성과 모순성을 더 잘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에서는 본인 작품 속에 나타난 신화와 기호의 심층적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신화와 기호가 관객들이 미술 작품을 해독하고 성찰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본인의 미술 작품 속에는 다중적인 상징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복잡하면서도 심도 깊은 시각적 서사구조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개별 동식물 이미지를 사용하여 특정한 문화 또는 역사적 배경을 상징하거나 특정한 감정이나 심리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상징적 요소는 직관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관객들의 끊임없는 발굴과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 외에 본고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관객들의 미술 작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신화와 기호는 보편성과 다문화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일정한 해독의 틀을 제공하지만 개개인의 생활 경험과 문화적 배경이 다르므로 그 틀

안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과 체험을 하게 된다. 이 역시 본인이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추구하는 바와 일치하다. 본인은 자신의 작품이 다원적인 해석을 이끌어내기를 바라며 관객들에게 사색의 공간을 제공하고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란다.

본 연구를 완성하면서 본인은 현대 조각의 신화, 원형 및 기호의 사용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예술가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창작 재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해석과 성찰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예술가로서 깊어져야 할 책임은 창작뿐만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사색의 시간을 갖게 하며 그들과 깊은 정서적, 심적 연결을 맺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본인의 미술 작품에 대한 깊은 분석이자 현대 조각에서 신화, 원형 및 기호의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이다.

키워드: 신화, 기호, 원형, 원시성, 혼성성, 산해경

# 목 차

국문초록

참고도판

I. 서론 .....	1
1. 연구 목적 및 의의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II. 이론적 고찰 .....	7
1. 신화 기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8
1) 원시 사회의 신화 기호와 예술과의 관계 .....	8
2) 신화 기호의 현대 사회와 현대 예술에서의 표현 .....	16
2. 신화적 원형과 예술 .....	21
1) 칼 구스타브 융: 집단무의식과 원형 .....	21
2) 노스롭 프라이어: 원형비평과 신화비평 .....	24
III. 선행 작가 연구 .....	28
1. 정신세계의 기호-마리노 마리니와 권진규 .....	29
2. 자연과 내면의 기호-호안 미로 .....	42
3. 현대에 융합된 원시 기호-우고 룬디노네 .....	51
4. 선행 작가와 본인작품의 비교분석 .....	60
IV. 연구자의 작품 분석 .....	64
1. 신화 기호 조각의 원천들 .....	64

1) 원시 조각과 아프리카 조각 .....	64
2) 중국 한나라 조각과 석각 .....	75
2. 조각적 이미지의 혼성 .....	82
1) 산해경의 이미지-서술 방식 .....	82
① 인간-동물 결합형 .....	95
② 동물-동물 결합형 .....	103
2) 기호와 물질의 결합 .....	109
3. 직관적 인식 .....	113
 V. 결론 .....	 122

참고문헌

ABSTRACT

## 참 고 도 판

참고도판 1) 프랑스 라코스 동굴, 약 기원전 17000년 .....	9
참고도판 2)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 약 기원전 17000년 .....	9
참고도판 3) 한국 반구대 암각화, 구석기 시대 .....	10
참고도판 4) 프라이의 계절과 장르, 생명, 그리고 신화에 대한 유사점들 ....	25
참고도판 5) 프라이의 관점에서 비극과 희극에 적용된 위대한 존재의 연결 (Great Chain of Being) .....	26
참고도판 6) 마리노 마리니, <기수(Miracolo)>, 석고58×58×31cm, 1948 ..	27
참고도판 7) 마리노 마리니, <기적(Miracolo)>, 브론즈, 165×261×122cm, 1980 .....	31
참고도판 8) 마리노 마리니, <기수(Monumento equestre)>, 브론즈, 435×337×233 cm, fusione post, 1980 .....	33
참고도판 9) 권진규, <기사(騎士)>, 안산암, 65×64×31cm, 1953 .....	37
참고도판 10) 권진규, <해신(海神)>, 테라코타, 46×20.5×61.5cm, 1963 .....	38
참고도판 11) 권진규, <춤추는 뱃사람 테라코타>, 58×79×7cm, 1965 .....	40
참고도판 12) 호안 미로, <달, 태양, 그리고 하나의 별>, 브론즈 및 칠해진 시멘트, 364×104×97cm, 1968 .....	44
참고도판 13) 호안 미로, <새(L'Oiseau)>, 브론즈 및 석탄 슬래그, 60×40×40cm, 1970 .....	46
참고도판 14) 호안 미로, <달의 새(Moonbird)>, 브론즈, 18.4×16.5× 11.4cm, 1946 .....	47
참고도판 15) 우고 론디노네, <일곱 개의 마법 산(Seven magic mountains)>, 돌 색칠, 높이10m, 2014. ....	52
참고도판 16) 우고 론디노네, <월출(Moonrise.East.June)>, 알루미늄, 페인트,	

나무, 120×200×110cm, 2006 .....	53
참고도판 17) 우고 론디노네, <우리는 뜨거운 발로 사막을 달리며, 모두가 빛나고 있고 우리 얼굴은 일그러져 보인다>, 강철, 콘크리트, 모래, 자갈, 147×380×161cm, 2008 .....	56
참고도판 18) 우고 론디노네, <더 킨(The keen)>, 블루스톤, 콘크리트, 스틸, 46×135×36cm, 2013 .....	57
참고도판 19) 선행 작가들과 본인의 작품 비교 .....	58
참고도판 20) 로센의 비너스, 프랑스, 45cm, BC20000-BC18000 .....	65
참고도판 21)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7×17×111.1cm, 구석기시대 .....	66
참고도판 22) 헨리 무어, <기댄 형상: 축제(Reclining figure: Festival)>, 브 론즈, 1951 .....	67
참고도판 23) 브랑쿠시, <키스(Kiss)>, 돌, 28×126×125.5cm, 1909 .....	68
참고도판 24) 아프리카 미술 나무조각, 16×16×39cm, 20세기 .....	71
참고도판 25) 나이지리아 사자, 테라코타, 6x7.75 인치, BC 3세기 .....	74
참고도판 26) 누워있는 말, 동양, 150×240cm, 석조, BC 117년 .....	78
참고도판 27) 마담홍노(馬踏匈奴), 동양, 168×190cm, 석조, BC 117년 .....	78
참고도판 28) 청나라 진창서업당장장 소장관의 오임신이 주석한 『산해경광 주』 (18권, 그림 5권)에 그려진 신수 .....	82

## 작 품 도 판

작품도판 1) 엔칭, <추오(駒吾)>, 84×60cm, 디지털 조각 2022 .....	86
작품도판 2) 엔칭, <용(龍)>, 84×60cm, 디지털 조각 2022 .....	89
작품도판 3) 엔칭, <용>, 금속, 3d 프린팅, 도색, 50×70×15cm, 2022 .....	90
작품도판 4) 엔칭, <협상(狲)>, 금속, 3d 프린팅, 도색, 60×53×17cm, 2022 .....	92
작품도판 5) 엔칭, <날, 한백옥>, 40×23×5cm, 2023 .....	92
작품도판 6) 엔칭, <형천(刑天)>-신수4, 모래, 80×45×80cm, 2017 .....	97
작품도판 7) 엔칭, <정위(精衛)>-신수1, 모래, 120×55×90cm, 2017 .....	100
작품도판 8) 엔칭, <양면(兩面)>, 청석, 40×35×10cm, 2023 .....	105
작품도판 9) 엔칭, <비마(非馬)-이것은 그 말이 아니다>, 금속, 3d 프린팅, 색, 70×23×16cm, 2022 .....	108
작품도판 10) 엔칭, <필방(畢方)>, 금속, 3d 프린팅, 도색, 73×20×13cm, 2022 .....	114
작품도판 11) 엔칭, <무제>, 금속, 3d 프린팅, 도색, 60×20×35cm, 2022 .....	116
작품도판 12) 엔칭, <기우(夔牛)>-신수3, 80×45×80cm, 모래, 2017 .....	118
작품도판 13) 엔칭, <과보(夸父)>-신수2, 100×50×70cm, 모래, 2017 .....	118
작품도판 14) 엔칭, <기우(夔牛)>, 수묵화, 50×50cm, 2023 .....	119
작품도판 15) 엔칭, <형천(刑天)>, 수묵화, 50×50cm, 2023 .....	120
작품도판 16) 엔칭, <과보(夸父)>, 수묵화, 50×50cm, 2023 .....	120
작품도판 17) 엔칭, <정위(精衛)>, 수묵화, 50×50cm, 2023 .....	121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의의

기나긴 예술사에서 조각 예술은 그의 특유한 시각과 촉감으로 중요한 학술적 지위를 정립하였다. 전통 미술에서 조각은 주로 형태의 사실적 표현이나 이상적 표현에 착안점을 두었으나 현대 미술의 발달과 더불어 조각 역시 점차 전통과 다른 창작 철학과 표현 기법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현대 조각은 끊임없는 성찰과 혁신 속에서 미술의 새로운 영역을 탐도색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예술적 특도색을 선보이고 있다. 그중에서 원시와 신화 기호의 융합은 현대 조각 연구와 창작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융합은 우연이 아닌 신화와 기호에 대한 인류의 깊은 정서와 인지에 기반한 것이다. 신화 기호는 인류사회의 발달사에서 항상 개인과 집단, 현실과 가상,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류사회의 우주관과 생활 철학을 형성하는 데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 조각 분야에서 예술가들은 원시, 신화 기호 및 조각 형상을 융합함으로써 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승화시키고 관객들에게 새로운 심미적 각도와 인지적 체험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전통 기호에 현대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새로운 시각을 통해 재구 및 재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목적은 현대 조각에서의 원시와 신화 기호의 융합 형태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이해하며 이들을 조각 형상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원시와 신화 기호의 본질 및 역할에 대해 문화, 사회 및 심리학 등 여러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이 조각 미

술 영역에서 담당하는 핵심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현대 조각의 여러 대표작을 중심으로 섬세한 미술적 해석을 통해 원시와 신화 기호들이 이들 작품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융합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결합 방식이 현대 조각 미술에서 어떻게 재창작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밖에 모더니즘 예술과 원시주의의 심층적인 연결에 대해서도 진일보 주목할 만하다. 모더니즘 예술의 기원, 특히 표현주의와 입체주의의 주요 유파들은 원시 예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원시 예술이 지니고 있는 오리지널, 자유, 소박함과 직접적인 특징은 모더니즘 예술가들에게 전통의 속박을 타파하는 관건적 계기를 줌으로써 내재적 정서에 대한 탐구와 표현을 심화시켰다.

초현실주의 조각 및 아키타이프(archetype)의 관계 역시 본 연구의 주요 구성 부분이다. 현대 미술의 한 유파인 초현실주의는 현실 세계의 표상을 통해 인간의 마음 속 깊이 내재한 잠재의식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아키타이프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고전 신화, 전설 및 종교 신앙에서 기원한 아키타이프들은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원시와 신화 기호는 초현실주의 조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흔히 연결 고리로써 현실과 초현실, 물질과 비물질, 의식과 잠재의식을 연결시킨다. 예를 들어, 조각품은 현실 물체(사람의 얼굴 등)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세부적인 표현, 비율, 또는 다른 요소들과의 조합 등은 충분히 현실의 구속을 뛰어 넘어 상상과 잠재의식이 가득한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처럼 원시와 신화 기호를 현대 미술에 융합하는 방식은 관객들로 하여금 현실을 초월하는 동시에 인류의 집단 무의식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한다.

현대 조각품에 원시와 신화 기호를 융합하는 방식은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내면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그와 연결할 수 있는 작은 창을 열어주었다. 이는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 보다 깊은 교류와 공감을 형성하였으며 우리에게 자신과 우주의 관계에 대해 토론하고 체험하며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탐구는 예술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인류의 심리적 성장과 자아인지에 대해서도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원시와 신화 기호가 융합된 현대 조각품을 분석할 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호들을 지각하고 응용하는 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런 아키타이프들은 미술 작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꿈, 심지어 유행 문화 속에도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한 장면 또는 인물을 볼 때, 예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유사한 장면이나 비슷한 인물을 본 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장면이나 인물이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의 어떠한 아키타이프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때 느낀 잠깐 사이의 공명으로 우리는 이야기 속의 장면이나 인물과 즉각적인 연결을 맺게 되고 이야기 내용을 더욱 깊게 체험하고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아키타이프에 대한 지각과 체험은 우리에게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제공해준다.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할 시, 우리는 연관된 아키타이프에 대한 탐색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기 내면의 잠재력과 힘을 발견할 수도 있다. 예술 창작 과정에서 예술가들도 이러한 아키타이프를 활용하여 작품을 구성함으로써 강한 에너지와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 배경은 서로 다른 아키타이프 표현 방식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인류의 기본적인 정서 및 경험과 통한다. 따라서 동서방, 고대 현대를 막론하고 예술가들은 모두 통용될 수 있는 언어를 찾아

그들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더 넓은 시각으로 볼 때, 아키타이프는 인류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자신과 우주를 탐색하는 방식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게 하는 소통의 다리를 놓아주었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주로 현대 조각 예술의 창작 과정 및 이론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대 조각품에서 사용된 원시, 신화 및 기호의 형태, 그리고 원시, 신화 및 기호가 조각 형상과의 혼합 상태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작품 속에서 실현된 원시, 신화, 기호 및 조각 형상과의 혼합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이 현대 조각에 대한 이해와 혁신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문헌 검토, 이론 분석, 실증 연구 및 사례 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조각에서의 원시, 신화 및 기호의 사용, 그리고 원시, 신화, 기호가 조각 형상과의 혼합과 관련된 문헌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를 함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신화 기호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미술에서의 기능과 의미를 제시하며 어떻게 조각 형상과 결합하여 독특한 예술적 효과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대표적인 조각 작품을 선정하여 실증 연구와 사례 분석을 함으로써 그들이 신화 기호와 조각 형상을 혼합함에 있어서 나타난 공통점 및 특징을 귀납하고 정리하였다.

현대 미술의 맥락, 특히 조각 예술 분야에서 원시, 신화 및 기호의 사용과 형상의 혼합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창작 언어와 창작 방식을 제공해주었다. 이는 미술 작품이 더 이상 형식의 재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정서의 표현, 이념과 문화의 전달, 사상과 의식의 반영으로 되게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예술가들의 자아 발견 및 자아 표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과 관객 사이의 교감함으로써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현대 조각에서의 원시, 신화 및 기호의

사용 형태 및 그들이 조각 형상과의 혼합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살펴봄으로써 현대 조각에 대한 인지를 심화시키고 조각의 창작과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사고방식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는 예술가, 예술이론가 및 일반 관객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 목적과 연구 의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상세한 분석과 심층적인 연구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연구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 본고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현대 조각품에서의 원시, 신화 기호의 응용 형태를 해석하고 형식과 내용 면에서의 표현에 대해 탐구하며 실천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창작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성찰과 총화를 통해 원시, 신화 기호가 본인의 작품 속에서의 응용 및 조각 형상과의 유기적인 혼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과 실천의 유기적인 결합은 본 연구로 하여금 대상성과 실증성을 갖추게 하였으며 현대 조각의 창작과 연구에도 새로운 사고와 계시를 제공할 것이다.

이 외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조각에서 사용되는 신화 기호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이 조각 형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조각 형상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혼합되는 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우리는 신화 기호는 예술가들이 그들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계를 탐구하고 인식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신화 기호가 조각에서의 응용은 전통 문화와 사상에 대한 예술가들의 존중 및 계승을 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와 생활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표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조각품에서 원시 신화 기호의 사용 형태 및 조각 형상과의 혼합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현대 조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 방식을 탐구하며 현대 조각의 창작 및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사고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프랑스 라스코 동굴과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벽화와 같은 원시 예술은 초기 인류의 생활과 신앙 체계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예술 작품은 구상과 추상의 기호를 통해 사회구조와 종교 신앙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기호의 연구는 초기 인류의 세계관과 사회조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시간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으로 신화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지만 현대 예술과 매체에서는 신화 기호에 대해 혁신적인 재해석과 응용을 진행하면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반이성주의는 전통적 심미관에 도전장을 던져 예술에서 개인적인 정서와 잠재의식의 표현을 촉발하면서 신화 기호는 개인의 경험과 공유된 문화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전환되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은 공유되는 지식과 경험의 보고로 인류의 공통적인 원형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원형은 전 세계 문화와 신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인식하였다. 원형은 예술 창작 과정 속에서 표현되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노스럽 프라이의 원형 비평과 신화비평은 현대 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문자와 예술작품은 신화의 원형을 재현하며 새로운 창작 영감을 제공하고 관객과 비평가들이 작품 속의 원형의 요소를 이해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 1. 신화 기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원시 사회의 신화 기호 및 예술의 관계

우리는 원시 미술을 어느 특정 시기의 미술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는 동굴 벽화, 암석 조각, 장식품 등과 같은 원시 사회 및 부족의 문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류 문명의 초기 단계를 반영한 미술이라고 볼 수 있다.<sup>1)</sup>

각종 동물화, 인물화, 장면 또는 추상적인 그림을 표현하는 동굴 벽화는 원시 미술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써 널리 연구되어 왔다. 이는 원시 인류가 주변 세계에 대한 관찰과 이해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동굴 벽화는 원시 사회의 사냥, 동물 숭배, 신화 및 종교 의식 등 내용들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초기 인류의 생활 방식을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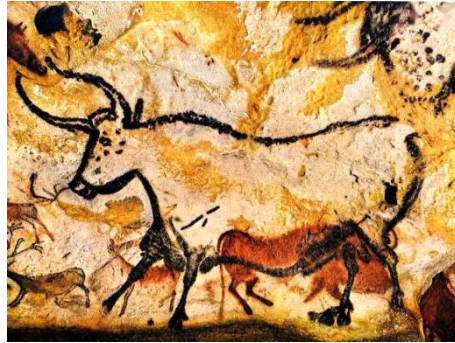
바위에 무늬, 기호나 형태를 새기는 암석 조각 역시 원시 미술의 주요 형태로써 흔히 암석 벽면, 비석 또는 조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물 형상, 동물 무늬, 기호 및 추상적인 기하 도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암석 조각은 초기 인류 사회의 가치관과 신앙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도르도뉴 지역에 위치해 있는 라스코 동굴 벽화(Lascaux Cave)는 선사시대 동굴 미술의 주요 대표작이다. 동굴 내부의 벽화와 조각에는 다양한 동물과 추상적인 기호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약 17,000년 전 구석기시대 인류의 작품으로 추정된다.<sup>2)</sup>

---

1) Paul Stover Wingert. Primitive art Its Traditions and Styles.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pp.8-14.

2) 동파, 주례. Lascaux Cave Painting and Deconstruction, *Creation and Design*. 2015, pp.16-22.



참고도판 1) 프랑스 라코스 동굴, 약  
기원전 17000년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Altamira Cave)은 유럽 최초의 동굴 벽화로써 ‘선사시대 예술의 바이블’로 불린다.<sup>3)</sup> 동굴 내부의 벽화와 암석 조각에는 주로 말, 소 및 손의 무늬가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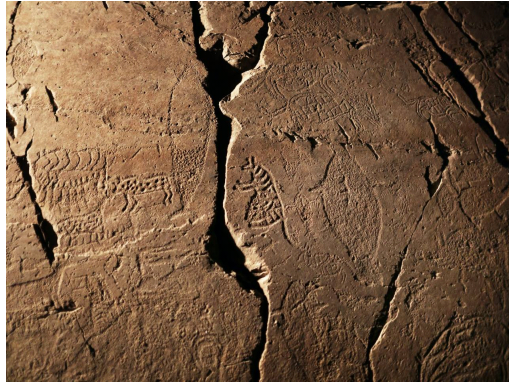


참고도판 2)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  
약 기원전 17000년

한국의 암각화에서 신화 요소가 포함된 다반구 암각화[참고도판 3]가 특히 유명하다. 약 7,000여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암각화들은 한국 동남부 울주 대곡리의 한 절벽에 위치해 있으며 상어, 포유류 동물, 해양 동물, 인물 형상 및 도구뿐만 아니라 치타, 호랑이, 상어의 날카로운 지느러미 등과 같은 무늬들이 새겨져 있다.<sup>4)</sup>

3) 유면이. 『알타미라의 비명』. 서옥, 3, 1996, pp.72-73.

4) 나경수. 「반구대 암각화의 신화학적 해석 가능성」, 『한국암각화연구』, 16, 2012. pp.5-19.



참고도판 3) 한국 반구대  
암각화, 구석기 시대

장식품 또한 원시 미술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원시인들은 다양한 소재와 기술로 보석, 머리 장신구, 각문 기구 등 여러 가지 장식품을 제작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기호나 기하 도형을 바탕으로 변형된 것이다. 이런 장식품들은 초기 인류 사회의 신분 지위, 종교적 의미 또는 개인 사상을 상징한다.

원시 예술<sup>5)</sup>에 대한 연구는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원시 예술 작품을 통해 원시 인류의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지각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원시 사회의 종교 신앙, 사회 구조, 일상생활 및 문화 정체성 등의 여러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원시 미술에 대

5) ‘원시 예술’이라는 용어는 ‘원시적인(primitif)’이라는 형용사가 ‘조악한’, ‘늙은’, 문명화되지 않은 민족들이 만든 ‘미개한’이라는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이국적인 것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서구 중심적 시각을 함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1960년대에 ‘제 1의 예술 arts premier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만들어진, 인류의 예술적 표현의 효시라는 점에서, 또한 뛰어난다는 의미로 ‘제 1의’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다. 즉 ‘제 1의’라는 수식어에는 ‘기원의’, ‘오래된’, ‘선조의’, ‘다른 것보다 먼저 나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Salzman, Daniel et al. *Surréalisme et Arts primitifs: un air de famille*, Ostfildern, Hatje Cantz Verlag, 2014, p. 13. 하지만 ‘제1의 예술’로 지칭된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인디언의 예술이 반드시 유럽의 예술들보다 먼저 나온 것이 아닌 만큼 이 용어 또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원시 예술’은 초현실주의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이며, 초현실주의자들은 이 용어를 서구 중심적 시각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로 ‘원초적인’, ‘근원 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원시 예술’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 연구는 인류 문화의 기원, 발달 과정, 우주 및 자신의 존재에 대한 초기 인류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시 예술에서 기호와 예술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기호는 특정한 방식의 사물의 표시, 상징 또는 표시 형이며 예술 작품은 일반적으로 기호의 매개로 사용되어 기호를 통해 특정한 의미와 정보를 전달한다. 원시 미술에서 기호는 구상 형식 또는 추상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구상 기호는 원시 예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인데 이는 동물, 인물 형상 또는 자연 요소를 대표로 구체적인 형상의 회화, 조각 또는 장식품 등 방식으로 표현된다. 원시 사회에서 구상 기호는 특정한 동물 숭배, 사냥 또는 종교 의식을 대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냥물을 그린 그림은 사냥의 중요성과 성공적인 사냥에 대한 사냥꾼들의 기원을 표현할 수도 있다.

반면 추상 기호는 기하 도형, 선, 색채 등과 같은 추상적인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기호는 구체적인 대응물은 없지만 특정한 개념, 사상이나 우주관을 상징한다. 원시 예술에서 추상 기호는 흔히 동굴 벽화, 암석 조각 또는 장식품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신성한 기하학, 우주의 구조 또는 상징적인 의미를 대표할 수 있다. 이러한 추상 기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원시 사회의 종교 및 우주관을 고찰할 수 있다.

원시 예술에서의 기호는 일반적으로 문화, 신앙 및 사회적 배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같은 기호도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기호에 대한 분석은 원시 예술을 연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미술 작품 속에 나타난 기호의 형상, 색채, 배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그들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밝힐 수 있다.

기호는 원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주로 종교 의식, 신화 이야기, 사회적 신분 및 정체성 등과 같은 수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

된다. 특히 기호는 종교 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시 사회의 종교 신앙은 그 문화와 사회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시 사회에서는 기호로써 신에 대한 숭배와 신앙, 종교 의식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였다. 원시 예술의 기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미스테리와 초자연적 힘에 대한 초기 인류의 인식, 종교 의식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기호는 신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원시 사회에는 수많은 신화와 전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구비 전설과 예술 표현 형식으로 후세에 전달되었다. 따라서 미술 작품 속의 기호는 신화 이야기의 장면이나 인물 또는 사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기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초기 인류의 신화 체계, 신화 인물 및 우주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 기호는 사회적 신분과 정체성을 전달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원시 사회에서 사회 구조와 신분은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기호로써 개인의 사회적 지위, 역할 또는 신분을 표시하였다. 미술 작품 속의 기호는 원시 사회의 사회 계층, 권력 관계 및 사회의 조직 형식 등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초기 사회의 사회 구조와 사회적 신분 정체성의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원시 예술의 기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초기 인류의 사고방식, 가치관 및 문화 체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기호는 문화적 언어로서 이를 통해 우리는 원시 사회의 사고방식, 세계에 대한 이해와 초기 인류의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초기 인류 문화와 문명 발달에 대해 중요한 견해를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와 문화의 기원 및 발전에도 깊은 영향을 가진다.

원시 미술은 그의 독특한 형식과 기호체계로써 세계에 대한 초기 인류의 이해와 지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인류 문화와 사회 발전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다. 원시 미술에서 동굴 벽화, 암석 조각 및 장식품 등과 같은 다양한 예술 형식은 모두 풍부한 기호 요소가 사용되었으며 깊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원시 미술에 대한 연구는 인류 문화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초기 인류의 사고방식, 가치관 및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해하도록 한다.

원시 미술에서의 기호는 동물이나 인물 형상과 같은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기하 도형이나 색채와 같은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기호들은 종교 신앙, 사회 구조, 신화 이야기 또는 사회적 신분 등 여러 가지 개념이나 의미를 상징할 수 있다. 원시 미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호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미술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심층적인 의미와 상징을 나타낼 수 있으며 우리들로 하여금 원시 사회의 문화와 사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원시 미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원시 사회의 생활 방식, 신앙 체계 및 사회 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인류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인류 문명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소중한 견해를 제공하며 우주와 생명 본질에 대한 원시 사회의 인식을 밝힘으로써 인류 문명의 발달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원시 예술은 인류문명사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정보와 역사적 가치에 대해 깊이 파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 우리는 모름지기 이러한 원시 미술 작품을 보다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며 예술적 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고 원시 미술의 독특한 가치에 대한 더 널리 알려야 한다.

원시 미술은 독특한 형식과 기호 언어로써 세계에 대한 인류 최초의 이해와 인식을 표현하였다. 이는 인류의 생활 및 세계관에 대한 직접적인 반영

이며 우리가 인류의 초기 문화 및 역사를 탐색하고 연구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원시 미술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통해, 우리는 초기 인류의 사고방식, 가치관 및 문화 체계를 알 수 있으며 인류 문명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중요한 견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인류 문화와 사회 발전을 이해하고 인류 역사와 문화의 발전을 보다 잘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화 기호는 인간의 마음 속 깊이 내재된 상징 언어로써 인류 역사와 문화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 특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 신화 기호의 형식과 의미는 큰 변화를 겪었다. 이는 인류의 심리적 변화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세계와 생활에 대한 인류의 새로운 이해와 인식을 나타낸다.

예술학적 차원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를 펼쳐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이 신화 기호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원시 사회에서 신화는 사람들이 세계와 생활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신화는 상징적인 언어와 형상으로 생명, 자연과 우주에 대한 인류의 기본적인 이해와 인식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신화 속에 사용된 신, 영웅, 동물, 자연 현상 등과 같은 요소들은 모두 특수한 기호로 되었는데 예술학에서는 이를 “신화 기호”라고 한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물질과 사물에서 전혀 다른 것들을 보아낸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물질들은 투명한 것이다. 그들은 물리학자나 화학자들이 관심 갖는 자연과학의 물질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인류의 생활을 밝혀주는 증거물을 찾는다. 그들은 과거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방법이 없다. 과거 생활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이해는 분산된 하나하나의 조각들이다. 이러한 조각들로부터 그들의 진정한 업무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분산적인 조각들을 수집하고 종합하여 앞뒤가 일치한 맥락 속에서 보이는 통일성과 연속성을 밝혀낸다. 이러한 이성과

상상의 조합이 바로 우리가 일컫는 ‘역사’이다. 이는 보편적인 규칙 속에서만 성립되는 시공간의 특정한 물질 현상을 ‘자연과학’이라고 보는 것과 같다. 이처럼 우리는 인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학적 탐구가 꼭 필요한 까닭을 쉬이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움직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느낌 속에서도 존재하는 사회적인 존재이다. 즉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커다란 사회생활의 시스템 속(언어 세계, 종교 세계, 예술 세계, 정치 제도 세계 등)에서 생활하는 존재이다. 생활한다. 사회생활의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생활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자신의 생활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은 언어 기호, 종교 기호, 신화와 예술 형상을 창조하였지만 오로지 이러한 기호와 형상 체계를 통해서만 그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즉 기타 존재와 교류할 수 있고 자신을 그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sup>6)</sup>

원시 사회에서 신화 기호는 신성함과 권위적인 지위를 가진다. 이는 종교적 숭배와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 과학 기술의 발전 및 사고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현대인들이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지는 더 이상 신화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신화 기호의 지위와 기능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

6) Cassirer E. *Symbol, myth, and culture: Essays and lectures of Ernst Cassirer*, 1935-1945, 1979. p.83.

## 2) 신화 기호의 현대 사회와 현대 미술에서의 표현

현대 사회에서 신화 기호의 표현 형식은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바뀌었다. 원시 사회에서의 신화 기호는 주로 구전 전통, 의식, 예술 등 형식을 통해 전달되었다면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전달 방식의 변화와 예술 형식의 다원화에 따라 신화 기호의 표현 형식도 보다 다양해 졌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영화, TV,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다양한 현대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에서 신화 기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신화 기호는 더 이상 전통적인 종교와 문화의 틀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창조성과 상상력이 부여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신화 기호의 의미는 더욱 풍부하고 복잡해졌다. 원시 사회에서 신화 기호의 의미가 주로 종교 신앙 및 사회생활과 직접 관련되었다면 현대 사회에서의 신화 기호는 이러한 전통적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성, 생명 및 우주를 깊이 탐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었다. 즉 신화 기호는 관객의 공감과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사회 현상과 심리 현상을 밝히는 데에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수많은 영화와 소설에서는 신화 기호를 재해석 또는 재창조함으로써 인간의 마음 속 깊은 내재적 동력이나 사회 현상의 뿌리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신화 기호는 중요한 예술 및 문화 재료로 되었다. 현대 예술 창작에서 수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다양한 신화 기호를 참고하거나 인용함으로써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구한다. 더불어 신화 기호는 예술 창작에 풍부한 재료 및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의 더 깊은 문화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신화 기호에 대한 인용과 재구 역시 인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이며 전승이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신화 기호의 의미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원시 사

회에서 신화 기호는 일반적으로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보다 개방적이고 상대적인 의미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에 대한 현대인의 개방적이고 다원적이 이해에서 시작된 것으로써 생활과 자아인지에 대한 현대인의 복잡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신화 기호에 대한 연구와 해석은 인류의 깊숙한 내면세계를 탐색하고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현대 미술에서의 신화 기호도 흔히 표현 기법 또는 창작 수단으로 사용된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신화 기호의 상징성과 심층적 의미를 이용하여 철학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미술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생명, 자연과 우주에 대한 인간의 깊은 사고를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 및 사회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신화 기호는 현대 예술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류의 마음 속 정서와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언어로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들의 심리적 변화에 따라 신화 기호의 형식과 의미도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에 대한 인류의 이해와 인식을 체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술의 혁신 및 발전의 새로운 동향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화 기호는 원시적인 종교와 문화의 틀을 뛰어넘어 현대 사회와 현대 문화 속에 널리 존재하는 상징적 언어와 창작 재료로 되었다.

신화 기호는 현대 예술 창작의 중요한 요소이자 수단으로 되었다. 예술가들은 신화 기호의 상징성과 다중적인 의미를 이용하여 새로운 예술 언어와 표현 방식을 창작한다. 이러한 방식은 깊은 철학과 심리적 관념을 전달할 수 있으며 강력한 시각적, 정서적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현대 미술에서 신화 기호는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밖에 신화 기호는 현대인이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었다. 현대인들은 개인적 신분 위기, 사회관계의 변동, 인류의

생존과 발전 등과 같은 수많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화 기호는 이상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신화 기호는 또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문화 및 교육 자원이기도 하다. 신화 기호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인류 문화의 다양성과 역사적 유산을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며 인간의 혁신적 사유와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신화 기호는 사람들의 생명, 자연과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 심리의 변화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의 신화 기호의 형식과 의미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즉 원시 사회에서의 종교 및 문화적 기호로부터 현대 예술, 사상 및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와 생명에 대한 인류의 새로운 이해와 인식을 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의 혁신과 발전의 새로운 추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신화 기호에 대한 연구와 활용은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도전과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이성주의(anti-rationalism)는 철학 사상으로써 절대 이성 또는 순수 이성에 대한 의심을 주장하고 직감, 감정 및 욕망 등과 같은 비이성적 요소가 인류의 인지 및 행위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파스칼이 이러한 관점을 제시하였다.<sup>7)</sup>

물론 데카르트와 동시대 인물인 파스칼도 시대 상황과 데카르트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파스칼은 이런 이성의 절대화를 비판하는 반이성주의의 입장에서 인식과 사유의 근거가 이성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sup>8)</sup> 그는 근대성과 개인 안의 새로운 인식

---

7) Zafirovski, M., & Rodeheaver, D. G.. Anti-rationalism and modern terrorism. In *Modernity and Terrorism*, 2013. pp. 253-297

론적 기초를 추구함에 있어 인간 행동의 모든 영역에 이성의 적용을 시도하는 데카르트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마음 또는 감정을 대립시킴으로써 이성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예술 영역에서의 반이성적 경향은 전통적인 예술 규칙과 심미 기준에 대한 도전이며 개체적 혁신과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추구이며 심층적 심리와 잠재의식에 대한 탐구이다.

반이성적 경향은 현대 미술에서 신화 기호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첫째, 반이성적 경향은 신화 기호의 해석과 응용 범위를 넓혔다. 전통적인 이성적 관념에서 신화 기호는 고정적이고 유일한 상징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종교 또는 문화 전통과 밀접히 연관된다. 그러나 반이성적 경향은 이러한 관념에 도전하여 신화 기호의 다양성과 깊이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념을 기반으로 신화 기호는 심층적인 심리적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개인의 직감과 정서를 통해 탐색되고 발견될 수 있다.

둘째, 반이성적 경향은 신화 기호의 혁신과 재구를 촉진하였다.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은 이성적 프레임에서 기존의 예술 규칙과 기호 체계를 따라야 하며 신화 기호는 흔히 전통적인 이미지나 이야기로 고착된다. 그러나 반이성적 경향은 예술가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와 창의력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직감과 상상에 따라 신화 기호를 재해석하고 재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심지어 완전 새로운 신화 기호를 창조할 수도 있다.

셋째, 반이성적 경향은 신화 기호의 심리 및 정서적 의미를 강화하였다. 전통적인 이성적 미술에서 신화 기호는 주로 객관적 사회와 문화 현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개인의 심리와 정서적 경험은 흔히 무시되거나 억

---

8) 장성민, 「근대철학에 나타난 반이성주의 - 파스칼의 데카르트 비판을 중심으로 -」, 『철학탐구』, pp.189-210

압되었다. 하지만 반이성적 경향은 개인의 주관적 체험과 정서적 표현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화 기호는 개인의 심층적 심리와 정서 상태를 밝히고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었다. 현대 미술에서 수많은 신화 기호는 더 이상 특정된 사회나 문화적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꿈, 욕망, 공포, 모순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 상태를 상징하게 되었다.

넷째, 반이성적 경향은 현대 미술에서 신화 기호의 발전을 크게 추진하였다. 이는 신화 기호의 해석 및 응용 범위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보다 심층적이고 개인적인 심리 및 정서적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신화 기호에 대한 예술가들의 혁신과 재구를 격려했으며 현대 예술에서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현대 미술 창작에서 반이성적 경향이 추구하는 개성적 표현과 직감적 창작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독특한 시각과 체험을 신화 기호의 해석과 응용에 반사하도록 하였으며 신화 기호가 보다 깊고 힘 있는 심미적 효과를 갖게 하였다. 예를 들어,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신화 기호는 재해석됨으로써 사람들의 잠재의식과 욕망을 드러내고 현실에 대한 초월과 비판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반이성적 경향은 신화 기호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에 대해 재해석하였다.<sup>9)</sup> 다원적인 문화 배경에서 신화 기호는 더 이상 특정된 종교나 문화 전통에 국한되지 않으며 문화와 지역을 넘어 서로 다른 개체와 사회 집단을 연결하는 공유 기호로 되었다. 이러한 신화 기호의 세계화와 보편화에 대한 이해는 신화 기호가 현대 미술에서 널리 전파되고 사용되며 인류의 공통 정서와 경험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반이성적 경향은 현대 미술에서 신화 기호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

9) Sheahan, L.C. Robert Nisbet: Art, History, and the Anti-Rationalism of Sociological Methodology. In *Critics of Enlightenment Rationalism Revisited*, 2022, pp.223-238.

끼쳤다. 반이성적 경향은 전통적인 예술 규칙과 기호 체계를 타파하고 개성적인 표현과 직감적인 창작을 제창하며 심층적인 심리와 정서의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현대 미술에서 신화 기호가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갖게 하였다.

## 2. 신화의 원형과 예술

### 1) 칼 구스타브 융: 집단 무의식과 원형

칼 구스타브 융<sup>10)</sup>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이다. 그는 심층 심리학의 창시자 중의 한 사람이며 정신분석학파의 중요한 학자이다. 융의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집단 무의식’이다. 융은 ‘집단 무의식’이란 긴 역사의 발달 과정에서 여러 세대를 걸쳐 축적된 인류 선조들의 경험으로, 인류가 어떤 사건에 대해 특정한 반응을 하는 타고난 유전적 경향이라고 하였다. 즉 집단 무의식의 내용은 후천적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다. 이 이론은 인간 내면에 소유하고 있는 공통된 정신적 유전을 강조하고 있다. 정신의 한 구성 부분인 집단 무의식은 자신의 존재를 개인의 경험으로 규납하는 개인 무의식과 구별된다. 즉 집단 무의식은 개인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볼 때, 개인 무의식을 구성하는 내용이 특정한 경우 의식에 속하지만 이는 잊혀지거나 억압되어 의식 속에서 사라진다. 반면 집단 무의식의 내용은 종래로 의식에 존재한 적이 없다. 따라서 개인에 의해 습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유전으로 보는 것이다. 대부분 콤플렉스(complexes)로 구성된 개인 무의식과는 달리, 집단 무의식은 기본적으로 원형에 의해 구성된다. 집

---

10)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1875-1961) 스위스의 저명 정신병리학자이자 심리학자이다. 그의 주요 미학저서로는 <분석심리학과 시가의 관계>, <미학 속의 심리유형>, <심리학과 문학> 과 <현대비극 연구> 등이 있다.

단 무의식에는 여러 가지 원형과 본능이 포함되는데, 원형은 선천적인 사유 경향이고 본능은 선천적인 행위 경향이다. 이러한 원형과 본능은 여러 가지 연상, 의상(意象), 생리적 기능 등과 같은 보편적인 정신 기능으로 표현된다.<sup>11)</sup>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은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개념에 기반하여 정립된 것이다. 하지만 개인 무의식에만 착안점을 둔 프로이드와는 달리, 융은 개인 무의식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존하는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집단 무의식은 오랜 인류의 역사 발달 과정에서 축적된 선조들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의 합이다.

융은 집단 무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원형’<sup>12)</sup>으로 보고 있다. 원형은 집단 무의식의 기본 요소이며 인간 심리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부분으로써 보편성과 상징성을 지닌다. 원형을 ‘원시 모형’ 또는 ‘민속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그 어원은 그리스어의 ‘archetypos’이다. ‘arche’는 ‘최초의’, ‘원시적’이라는 뜻이며 ‘typos’는 ‘형식’이라는 뜻이다. 플라톤은 이 개념으로 사물의 이념적 본원을 가리켰다. 플라톤은 현실 사물은 이념의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이념은 객관 사물의 ‘원형’이라고 보았다. 2천여 년 동안 거의 잊혀지다시피 한 ‘원형’이라는 개념이 융의 재해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1936년 10월, 융은 런던의 한 학술 보고회에서 발표한 <집단 무의식의 개념>에서 ‘원형’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였다.

집단 무의식의 사상과 갈라놓을 수 없는 ‘원형’이란 마음 속의 명확한 형식의 존재로써 언제 어디에서나 표현을 추구한다. 신화학 연구에서는 이를 ‘모제(母題)’라고 한다. 원시인 심리학에서 ‘원형’은 레비브뤼이 말한 ‘집단 표상’의 개념에 해당된다.<sup>13)</sup>

11) 荣格, 『集体无意识的概念』, 冯川 译.荣格文集, 改革出版社,1997.83,p.8.

12) Jung, C.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ollected Works, 9(1), Princeton, NJ: Bollingen.1959, pp.11-18.

13) 앞의 책, pp.42-43.

같은 보고서에서 융은 원형은 인류 ‘본능의 무의식 형상’ 및 ‘본능 행위의 모형’으로써 필연적으로 개인의 심리에 나타날 것인즉 특히 꿈, 환상, 망상 등과 같은 부정적 상상이나 창조적인 상상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원형의 잠재된 심리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원형 및 원형이 재현되는 조건에 대한 연구는 정신병원학 및 예술창작 동력학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원형은 구체적인 기억이나 경험이 아니라, 기억과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추세를 가리킨다.<sup>14)</sup> 원형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 영웅, 하느님, 악마, 음양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인류의 공통된 경험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문화의 신화, 이야기, 예술, 종교 등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웅의 원형은 세계 각지의 신화 및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데 이는 영웅의 개념이 집단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융은 사람들의 꿈, 환상, 신비한 체험 등은 무의식 속의 원형의 의식 속으로 떠오르는 과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무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과정을 융은 ‘원형의 실현’<sup>15)</sup>이라고 하였다.

집단 무의식과 원형 이론은 개인 행위와 집단 행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술, 종교, 문화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수단을 제공하였다. 융의 이론은 인간에 깊이 내재된 심리 세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중요한 프레임과 수단을 제공하였다.

예술 및 창조적 과정에서 융은 원형과 집단 무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겼다. 예술가와 작가들은 이러한 심층적인 심리 구조에 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상징적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심층적인 심리 구조는 인류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에서 기원하였으므로 우리는 서로

14) 박성일. 「시각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원형적 심상에 관한 연구」. 『論文集』 14. 1996, pp. 125-156.

15) Jung, C.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ollected Works*, 9(1), 1959. Princeton, NJ: Bollingen. p.44.

다른 문화와 역사시기의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 속에서 유사한 주제와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 2) 노스롭 프라이: 원형비평과 신화비평

노스롭 프라이<sup>16)</sup>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비평가 중의 한 명이다. 그의 주요 학술성과는 두 개의 핵심적인 개념을 정립한 것인데 바로 원형비평과 신화비평이다. 이 두 개념은 프라이가 그의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이다.

원형비평은 프라이의 핵심적 이론 중 하나이며 그의 ‘Anatomy of Criticism’ 이론의 기초이다.<sup>17)</sup> 프라이는 한 문학 작품 속의 어떤 요소나 줄거리는 다른 문학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일정한 모형 또는 ‘원형’을 형성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원형은 일반적으로 바이블 이야기나 고대 신화 또는 민간 전설과 같은 문화, 종교 또는 사회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원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여러 작품들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작가들이 원형을 통해 자신의 사상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프라이의 신화비평이론은 원형비평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프라이는 모든 문학작품은 신화의 재창작나 재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의 저서 <비평의 해부>에서 프라이는 문학을 희극, 비극, 풍자 및 로맨스 등

---

16) 허만 노스롭 프라이(CC FRSC)(Herman Northrop Frye, 1912년7월14일-1991년 1월23일)은 캐나다대학 평론가이자 문학이론가이다. 프라이는 첫 번째 작품 <무서운 균형>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 작품은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를 재해석하였다. 보다 중요한 성과는 프라이는 <비평의 해부>를 통해 현대 문학비평의 원형비평 이론을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해럴드 블룸은 <비평의 해부>는 프라이를 “서양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석학자로 확립하였다”고 하였다.

17)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pp. 131-151.

네 가지 장르로 나누었다.<sup>18)</sup> 이 네 가지 장르는 신화에 대한 문학의 네 가지 재창작 방식이다. 프라이의 신화비평은 문학에서의 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학 작품 속의 신화적 요소를 이해하여야만 그 작품의 의미를 진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계절	장르	생명 주기	연관된 신화
봄	코미디	탄생 (생명)	탄생의 신화
여름	로맨스	청춘, 성장	승리, 조화의 신화
가을	비극	노년, 성숙	몰락, 쇠약, 이별의 신화
겨울	아이러니	죽음	혼돈, 죽음, 어둠의 신화

참고도판 4) 프라이의 계절과 장르, 생명, 그리고 신화에 대한 유사점들

노스럽 프라이의 핵심 이론인 원형비평은 비록 처음에는 문학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지만 그 핵심 사상은 예술학의 기타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다. 우리는 회화나 조각 같은 시각 예술, 또는 연극이나 영화 같은 공연 예술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모형이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프레임에서 ‘원형’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나 줄거리를 가리키며 보편적인 모형을 이룬다. 예를 들어, 조각 예술에는 어머니, 영웅 또는 신의 이미지와 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이 있다. 이러한 원형은 종교, 신화 또는 민간 전설에서 기원한 것일 수 있는데 이들은 단일 문화 속에서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나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한다.<sup>19)</sup>

여섯 세계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존재의 사슬로 설명됨)	비극적 시각에서의 신화적 연관성	희극적 시각에서의
----------------------------------	-------------------	-----------

18) 앞의 책, pp. 158-223.

19) 김교빈,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 「인문콘텐츠」, 2005, pp.7-22.

		신화적 연관성
신적인	화가 난, 악마 같은 신	신
인간	악한 사람, 폭군 지도자	좋은 사람, 영웅
동물	포식자 (늑대, 뱀, 독수리)	양
식물	죽음의 나무, 어두운 숲, 선인장	에덴의 동산
광물 (도시에 적용됨)	사막, 바위, 폐허가 된 성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신전
물	파괴의 바다, 죽음의 물, 해양 괴물	생명의 물, 포도주

참고도판 5) 프라이의 관점에서 비극과 희극에 적용된 위대한 존재의 연결(Great Chain of Being)

예술학에서 원형비평은 다음과 같이 응용된다. 즉 원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 예술 작품 사이의 유사성 및 예술가들이 원형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을 알아가는 것이다.<sup>20)</sup> 예를 들어, 우리는 각 예술 작품 속의 ‘영웅의 여정’이라는 원형의 묘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예술가들이 시각적 기법으로 인성의 도전과 고난을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인성의 성장과 전환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sup>21)</sup>

허만 노스럽 프라이의 원형비평과 신화비평은 현대 예술의 발전, 특히 조각 영역에서 깊은 영향을 미쳤다. 조각은 3차원 시각 예술 형식으로써 독특한 방식으로 원형 및 신화 요소를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다.

프라이의 원형비평은 예술가들에게 고전 원형을 이해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의 여러 캐릭터(헤라, 아폴로, 아레스 등)는 고대 조각 및 현대 조각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현대 조각

20) 임정숙. 「Northrop Frye의 신화비평체계」, 『미학』, 8, 1982, pp. 45-59.

21) 이동원. 「상감문학 아함 시의 자연 상징 연구: 프라이의 원형비평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2018 (45), pp. 239-260.

가들은 다른 시각이나 새로운 문화적 배경으로 캐릭터들을 묘사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프라이의 신화비평 역시 조각가들에게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조각가들은 이 틀을 이용하여 신화를 재구하고 혁신할 수 있다. 이러한 재창작은 신화 속 인물과 이야기를 조각으로 전환하거나 조각을 통해 신화의 주제를 묘사하는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프라이의 이론은 예술비평가와 관객들에게 비평적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조각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조각 속의 원형 요소를 인식하고 해석하며 이 요소에 대한 서로 다른 문화, 역사 및 사회적 배경에서 나타난 다른 해석들이 포함된다. 프라이의 원형비평과 신화비평은 조각가들에게 혁신의 영감을 안겨다 주었다. 조각가들은 그 속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원형, 새로운 신화를 담은 조각품을 창작할 수 있으며 이로써 조각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다.

### Ⅲ. 선행 작가 연구

마리노 마리니는 20세기 이탈리아의 조각가로서 그의 작품은 당시 예술 및 문화 배경의 영향을 깊이 받아 전통적 주제와 현대적 감각을 융합함으로써 인류의 본성과 세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마리니의 작품 중 ‘말과 기수’ 시리즈는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 현대 세계의 복잡한 관계를 상징한다. 작품 <기적>은 강렬한 정서와 상징을 통해 현대인의 고독과 고민을 반영하였다. 그는 통일감과 정서를 강조하였으며 추상화 형식을 통해 심층적인 의미와 정보를 전달하였다. 마리니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독특한 예술 언어로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표현하였다.

권진규는 한국의 현대 조각가로서 그의 작품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방식으로 인류의 본질과 자연의 힘을 탐구하였다. 권진규는 전통적 소재와 간결한 형태를 사용하여 공간과 형식에 대한 관객의 인식에 도전하였다.

호안 미로는 그의 회화 특색을 본받아 추상적인 형식과 선명한 색채를 사용하여 상상력으로 가득찬 3차원적인 작품을 창작하였다. 미로의 조각은 비현실적인 형태와 단순한 도형을 결합하여 그의 내면세계와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하였다.

우고 론디노네의 예술은 존재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성찰이다. 그의 작품들은 흔히 자연 요소나 물질을 비전통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고독과 시간의 흐름을 탐구한다. 그리고 작품 속의 신화적 상징은 강한 개인적 특징을 지니며 생활 환경과 인간 감정 상태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다.

## 1. 정신세계의 기호-마리노 마리니와 권진규

마리노 마리니는 이탈리아의 조각가이며 화가이다. 그의 작품은 주로 20세기 중반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말과 기수> 시리즈이다. 그의 중심 창작 주제인 ‘말과 기수’ 시리즈는 에트루리아와 북유럽 조각의 전통을 참고하였다. 그는 현대적인 초점 및 기술로서 고전적 주제를 해석함으로써 신화 이미지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22)</sup>

마리니의 작품은 형식과 정서의 융합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적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기본형태로 단순화시켜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이 전달하는 정서에 더 집중하도록 한다. 그의 조각 작품은 원시적이고 강렬한 정서적 역량을 표현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인성의 기본적이며 원시적인 요소를 느끼게 한다.

마리니의 <기수> 시리즈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기수>[참고도판 6]은 마리니가 1950년대에 창작한 시리즈 작품으로써 그의 미술 창작의 중요한 단계이다. 이 시리즈 작품에서 그는 강렬한 상징과 추상적 기법을 사용하여 말과 기수의 형상으로 인류와 자연의 관계,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였다. 1935년부터[참고도판 6]은 마리니가 평생 꾸준히 창작하는 주제로 되었다. <기수> 시리즈를 통해 마리니는 자신의 예술적 추구와 탐색의 전환을 완성하였다.<sup>23)</sup>

초기 [참고도판 6] 작품에서 기수와 말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다. 기수가 조용히 말 타고 앉아 말고삐를 잡아당기는 형상으로 기수의 머리-골반 중심축은 꺾임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직립하거나 앞 발을 들어 천천히 걸

---

22) Marino museum (English) Archived 21 July 2011 at the Wayback Machine -Accessed 15 April 2011.

23) Watkins, Nicholas. "From Fascism to the Bomb: Marino Marini and the Undermining and Destruction of the Classical European Horseman." *Myths of Europe*. Brill, 2007. pp. 235-246.

어가는 말의 형상은 고대 로마의 영웅조각 기념비 식의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조각은 전반적으로 평온하고 소박하며 사실적이다. 또한 말의 형상에서 우리는 고대 중국 당나라, 송나라 시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sup>24)</sup>



참고도판 6) 마리노 마리니, <기수(Cavaliere)>, 석고, 58×58×31cm, 1948

마리니의 작품은 대부분 구상적이지만 현실을 초월하는 감각을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은 형식상의 추상화로 인해 구체적인 현실을 초월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을 감상할 때, 관객들은 강렬한 정서적 힘을 느끼게 되는데 그 힘은 바로 현대 세계에 대한 반영이다.

이보다 더 심층적인 기호는 말과 기수의 관계에서 표현된다. 마리니의 <기수>시리즈에서 말과 기수의 관계는 계속 변화된다. 기수가 말의 제어권을 단단히 장악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수가 무기력하거나 심지어 말 등

---

24) Marini, Marino, Helmut Lederer, and Eduard Trier. *The Sculpture of Marino Marini*. 1961, pp. 244-253.

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인류와 자연의 힘의 관계, 또는 더 넓은 의미에서 인류와 운명의 관계를 상징한다. 기수가 말에 대한 제어권을 상실한 것은 현대 사회에서 인류가 자연 및 자아 통제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도판 7) 마리노 마리니, <기적(Miracolo), 브론즈>, 165×261×122cm, 1980

1955년 마리니는 유명한 나무 조각품 <기적>[참고도판 7]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은 강렬한 형식감과 사람을 질식시키는 절망감으로 공간과 관객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쓰러진 말은 머리가 땅에 닿고 앞 다리로 땅을 짚고 뒷다리를 꼳꼳이 뺀 온 힘을 다 해 몸을 지탱하고 있다. 기수는 말 등에 앉아 뒤로 몸을 젖히고 있는데 이는 말이 앞 다리를 꿰는 순간의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강력한 움직임 표현하고 있다. 이 조각의 전반적인 구도는 삼각형 사용하고 있는데 뒤로 몸을 젖힌 기수와 땅에 닿은 말의 머리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을 가리킴으로써 아주 강렬한 충돌의 긴장감을 자아낸다. 이는 공간을 두 쪽으로 찢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만

같다.

작품 [참고도판 7]에 나타난 기수들은 더는 전처럼 평온하고 침착하지 않은 반면 고귀한 외투를 벗어버리고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허공에 매달려 있거나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또는 두 팔을 쭉 벌리고 있는데 이는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으며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 같다. 동작마다, 구도마다 고통과 몸부림과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과거 유럽 민족의 정신적 버팀이 이 작품에서는 비통과 혼돈에 빠진 것만 같다. 마리니는 기수와 말을 빌려 자신의 정서를 쏟아내고 있다. 즉 이 세상에서 자신이 느낀 고통을 고통스러운 기수 작품으로 농축시킨 것이다.

마리니 조각품의 기호성은 추상화된 형식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형상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추구하지 않는 반면에 단순화와 추상으로 조각의 정서적 표현력을 강화하였다. 이런 형식의 추상화로 그의 조각품은 구체적 현실을 초월하는 정서와 사상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 외에 그의 작품 속의 기호성은 형상에 대한 선정, 형상 관계에 대한 묘사 또는 형식에 대한 처리에서 체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호성의 표현으로 그의 작품은 시각적으로 강한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사상 및 정서적으로도 강한 표현력을 갖는다.



참고도판 8) 마리노 마리니, <기수(Monumento equestre)>, 브론즈,  
435 ×337×233cm, 1958

‘기수’는 마리노 마리니의 대표작[참고도판 8]일 뿐만 아니라 그의 기호적 예술 언어의 완벽한 전시이기도 하다. 말과 기수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 및 형식에 대한 자유로운 처리를 통해, 마리니는 인류와 자연 관계에 대한 깊은 사고와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그의 미술 창작에 성공적으로 융합시켰다. 또한 마리니는 이 작품에서 형식에 대해 독특하게 처리하였다. 그는 형상의 완벽한 재현을 추구하지 않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형상 및 자유롭게 처리된 선과 공간을 통해, 역동적이고 긴장한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작품의 상징적 의미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시각적 자극을 주게 하였다.

마리니의 미술 창작에 대한 해석을 통해 우리는 그의 작품은 여러 가지 예술 기법이 사용하였으며 독특한 시각적 언어를 통해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의 심층적 관계에 대해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예술의 혁신은 표현 형식에 대한 독특한 처리, 신화 요소에 대한 현대적 해석, 정서에 대한 직접적 표현 및 상징적 요소에 대한 적절한 사용 등 면에서 체현된다. 이러한 기법과 요소의 융합은 예술가들이 자기표현 및 혁신적 돌파구를 찾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리니는 작품 속에서 상징과 추상의 기법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작품으로 하여금 풍부한 함의와 넓은 해석 공간을 지니게 하였다. 그의 작품 속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종교, 신화, 문화 전통 등과 같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서 기원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 등의 심층적인 관계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미술 작품을 창작할 시, 어떻게 하면 상징적 요소를 잘 활용하여 작품의 함의를 풍부히 하되 우리의 사상과 정서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마리니의 예술적 혁신은 형식에 대한 독특한 처리에서도 표현된다. 그는 전통적인 조각 형태에 구속되지 않고 형태를 과장시키거나 왜곡하고 선과 공간을 자유롭게 처리함으로써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창조하였다. 우리는 그의 이런 혁신 정신으로부터 미술의 표현 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는 창작 과정에서 전통적 속박에서 벗어나 형식의 혁신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자신만의 시각적 언어로써 창작 사상을 표현할 수 있다.

마리니는 작품 속에서 고대 신화 요소에 대해 현대적 해석을 하였다. 그는 신화적 요소와 현대적 주제를 결합하여 신화에 새로운 의미와 맥락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혁신 방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술 표현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창작 과정에서 고대의 신화적 요소를 현대적 맥락 속에 융합시키는 시도를 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를 반영하고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전통 신화 이

야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재구 또는 신화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시대적 특징과 개인 스타일을 갖춘 새로운 예술 형식을 창조할 수도 있다.

마리니의 작품은 정서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다. 그는 강렬한 상징과 형식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깊은 사고와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은 강렬한 정서적 전율로 가득차있다. 사회 현실에 대한 성찰이나 인성에 대한 깊은 탐색은 모두 예술가의 깊은 정서적 투입과 인문학적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미술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정서의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도 작품 속에서 자신의 정서와 관찰을 표현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즉 미술적 기법을 통해 개인의 느낌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관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미술과 관객 사이의 정서적 공감을 실현할 수 있다.

마리니 작품의 상징적 요소에 대한 활용, 형식의 혁신, 신화에 대한 현대적 해석 및 정서의 직접적인 표현 등은 모두 우리에게 독특한 미술 시각과 영감을 제공하였다. 미술 창작 과정에서 우리는 마리니의 미술 정신과 기법을 참고하고 수용하여 자기표현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미술 형식을 탐색하고 미술 작품을 통해 관객들과 깊은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다.

권진규와 마리노 마리니는 모두 20세기 유명한 조각가로서 그들의 작품은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sup>25)</sup> 그들은 형식에 대해 깊은 탐색과 대담한 혁신, 그리고 상징과 추상적 요소에 대한 다양한 활용을 통해 독특하되 영향력 있는 예술적 언어를 성공적으로 창제하였다. 그들의 작품은 정서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즉 자신의 관찰과 생활 체험에 대한 해부학적 분석을 통해 인성, 자연 및 사회의 여러 면을 밝히되 예술과 생활을 더 밀접하게 연결시킨다.

---

25) 류지연. 「권진규 작품 분석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9. pp.8-9.

그들의 조각품은 형식에 대한 처리 방식이 독특하고 대담하며 과장, 왜곡 및 기하적 표현 형식에 대한 탐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형식 상의 혁신과 탐색은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도전적이면서도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마리니의 작품에서 선과 공간에 대한 자유로운 처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한 시각적 언어를 형성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직관적인 시각으로부터 작품 속에 내재된 정서와 사고를 느끼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권진규의 작품에서 형태와 공간에 대한 독특한 처리는 물질과 형태를 초월하는 시각적 느낌을 조성한다.

이 외에 강렬한 상징성과 추상적 요소는 그들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들은 추상과 상징적인 미술 기법을 사용하여 인성, 자연 및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상징성, 추상적인 표현은 그들의 작품으로 하여금 단순한 물상(物象)을 초월하여 함의가 풍부한 상징과 은유를 지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그들은 신화 속의 인물이나 사건과 같은 인성을 상징하는 요소와 산, 물, 나무 등과 같은 자연계의 상징물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미술적 시각과 혁신 형식으로 새로운 의미와 함의를 부여한다.



참고도판 9) 권진규, <기사(騎士)>, 안산암, 65×64×31cm, 1953

더 중요한 점은 그들의 작품은 모두 정서의 직접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미술 작품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러한 정서를 느끼고 자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권진규의 작품은 함축적이면서도 깊은 정서를 나타낸다. 그의 조각품은 흔히 간결한 선과 형태로써 물질과 형태를 초월한 정신적 경지를 표현한다. 특히 작품 <기사>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판단하기 어려운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말과 융합되어 동물인지 인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를 창조하였다.<sup>26)</sup> 또한 작품 <해신(海神)>[참고도판 10]에서는 말도 아닌 고슴도치도 아닌 제3의 존재인 <말슴도치>를 창작하였다. 그는 말과 고슴도치에 대한 변형과 단순화를 작품 속에 담겨진 해학과 풍자를 표현하였다. 이는 변형을 거쳐 창조된 새로운 형태로써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었던 낯선 사물이다. 이를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고요함 속에서 생활에 대한 그의 깊은 이

26) 권진규. 미술세계선정 이달의 작품 「손」. 『더원미술세계』, 1985, pp. 43-43.

해와 통찰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sup>27)</sup>



참고도판 10) 권진규, 〈해신(海神)〉, 테라코타, 46×20.5×61.5cm, 1963

신화적 요소에 대한 활용에서 그들은 모두 고대 신화 이야기와 현대적 주제를 결합하였다. 마리니는 작품에서 고대 신화적 요소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과 재창조를 통해 신화에 새로운 의미와 함의를 부여하였다. 그의 작품은 고대 신화 문화를 전승하는 동시에 독특한 미술적 시각으로 현대 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반영하였다. 권진규의 작품에도 신화적 요소들이 가득하다. 그는 신화 이야기의 재현과 개편을 통해 작품에 심오한 문화적 바탕과 신비로운 매력을 더하였다.

권진규와 마리노 마리니의 작품은 각자의 특색을 띠고 있지만 형식의 탐색, 상징적 요소의 활용, 정서적 표현 및 신화적 요소에 대한 현대적 해석

27) 이원숙. 「권진규 조각에 표현된 변형과 들뢰즈의 "되기"이론」, 『동양예술』, 26, 2014, pp. 344-364.

등의 면에서 뚜렷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그들 작품의 깊이와 함의를 체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혁신성과 창의성도 반영하고 있다. 그들의 작품은 독특한 미술적 언어와 시각적 효과를 소유하고 있으며 깊은 사고와 정서적 표현이 풍부하다. 이는 우리에게 독특한 미술적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제공해 주었다.

권진규의 조각품에서는 원시성과 직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 과감하고 생동한 표현 방식과 심오한 사고와 관찰을 융합함으로써 첫눈에 바로 강렬한 시각적 자극과 정서적 표현을 느끼게 한다.

권진규의 작품 속에는 원시적인 자연 요소와 인성 주제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의 일부 작품에서는 고대 신화와 상징 기호를 영감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요소들은 모두 인류의 원시적 정신과 정서의 매개체이다.<sup>28)</sup>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그는 삶과 죽음, 사랑과 공포, 욕망과 충동 등과 같은 인류의 원시적 정서를 탐색하고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의 작품은 표현 형식에서도 원시적이며 직접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직관적이며 구상적인 형상과 기호를 활용하여 강렬하고 생동한 시각적 효과로써 심층적인 정서와 주제를 전달하는 데 능하다.<sup>29)</sup>

---

28) 김현숙. 「권진규 조각의 형식 또는 양식의 근원에 대한 고찰 - 아르카이즘과 리얼리즘 사이에서에 대한 토론문」. 『한국 근현대 미술사학』, 2022, pp. 42-44.

29) 이원숙. 「권진규 조각의 방법론에 나타난 사건과 우연성」, 『기초조형학연구』, 제13권, 6호, 2012, pp. 353-365.



참고도판 11) 권진규, <춤 추는 뱃사람>, 테라코타에 채색, 58×79×7cm, 1965

권진규는 인물(남, 여), 동물 및 추상 등을 주제로 조각, 부조, 회화 등 수많은 작품[참고도판 11]을 창작하였다. 그는 서방 조형론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물상이나 동물상을 창작함에 있어서 그는 모두 사실에 대한 모방적 재현을 초월하고자 하였으므로 형상을 단순화시키거나 변형시키는 것을 선호하였다. 또한 그의 작품에는 수식된 자연이 없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형태와 다양한 질감 효과로써 동시대 예술가들과 완전히 다른 세계를 구축하였다.<sup>30)</sup> 또한 그의 작품 속의 그림과 기호는 직접적이면서도 뚜렷함으로 관객들은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정서를 바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 그의 작품은 관객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그의 작품의 매력이다.

30) 이원숙. 「권진규 조각에 표현된 변형과 들뢰즈의 '되기'이론」, 『동양예술』, 26, 2014, pp. 344-364.

권진규 조각품의 원시성과 직관성은 그의 독특한 예술 풍격의 중요한 특징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은 직접적이고 강렬한 시각적 표현과 깊은 정서적 몰입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 자연 및 인성에 대해 보다 깊은 사고와 깨달음을 갖게 한다.

## 2. 자연과 내면의 기호 - 호안 미로

호안 미로<sup>31)</sup>의 예술적 조예는 현대 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호안 미로의 창작은 전통 미술의 시각과 사유 프레임을 타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각 영역에서 새로운 미술 표현 방식을 창조하였다.

바르셀로나 예술학교에서 고전 예술을 전공한 호안 미로의 미술 생애는 현실 세계에 대한 재현과 모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초기 작품은 고타 카탈루냐의 자연 풍경 및 인문 풍속의 영향을 많이 받아 짙은 지중해 지역의 특색을 띠고 있으며 색채와 형식에 대해 전통적인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sup>32)</sup> 초기 회화 작품에서는 흔히 농촌 마을의 모습이나 시골의 일상생활을 그렸는데 이는 일정한 현실주의 경향을 띠고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전통 회화의 제한성에 대해 불만을 느꼈다.

파리와 같은 활력이 넘치는 예술 환경에서 특히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sup>33)</sup>이 주도한 초현실주의의 영향<sup>34)</sup>을 받아, 미로는 내면세계와 꿈을 투영할 수 있는 미술적 표현 수단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초현실주의는 잠재의식에 대한 탐구를 추구하며 내면의 창조적 잠재 능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는 미로에게 있어서 미술적 표현 수단의 변혁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 철학에 대한 탐색이기도 하다. 즉 그는 물질과 현실의 경계를 초월하여 새로운 표현 형식을 탐색하고자 노력하였다.

31) 호안 미로(Joan Miró i Ferrà, 1893.4.20-1983.12.25)는 카탈루냐의 화가, 조각가, 도자기 예술가, 판화가로서, 초현실주의의 대표적 인물이다.

32) 이귀열, 「미로」, 『세계미술문고』, 금성출판사, 1976, P.73.

33) 앙드레 브르통 (André Breton, 1896 - 1966. ) 프랑스의 시인. 탄슈브레에서 출생, 파리에서 사망. 슈르레알리즘의 주창자, 지도적 이론가. 정신병리학을 배우고, 제1차대전에 군의보로서 종군. 1919년 오토마티즘에 의한 시의 창작법을 발견하고 또 다다이즘운동에도 참가했다. 1924년 『슈르레알리즘 제1선언』을 발표. 슈르레알리즘의 일관된 중심적 존재로서, 초현실적 가치에 관계된 그의 탐구와 사상은 현대예술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34) 이은주, 「1930년대 초현실주의 전시를 통해 본 초현실의 사회적 의미」, 『미술사와 시각문화』, vol. 19, 2017, pp. 38-65.

미로는 그의 창작 스타일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련의 시도와 전환으로 자신만의 예술적 상징을 형성하였다. 자연계 요소인 별, 달, 새 및 여성 등과 같은 이미지들은 그의 창작 과정에서 단순한 기호와 형태로 전환되어 점차적으로 상징성과 긴결함을 띠게 되었다. 미로의 작품에는 개구쟁이가 그린 것만 같은 형태와 색채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그의 회화 기법이 미성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천진난만하며 원시적인 정서를 표현하고자 의도적으로 선정한 표현 방식이다.

미로의 창작 과정에서 원시 미술에 대한 표현 능력은 원시성과 소박함에 대한 추구에서 표현된다. 그는 어린이의 그림과 원시 민족 미술에서 보이는 직접성과 소박함에 대해 아주 높이 평가하며 자신의 미술 창작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작품에는 공을 들여 다듬은 형태가 아닌 즉흥적인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원시적인 힘과 신비로움을 드러낸다. 그는 섬세한 디테일에 대한 묘사를 추구하지 않은 반면에 단순한 형상, 율동적인 선과 순수한 색채로써 문명 속박에서 벗어난 예술 영역을 구축하였다. 그는 이러한 원시성은 인류의 공통된 원시적 기억과 감각을 일깨울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우리는 미로의 조각품에서 다원적으로 표현된 그의 예술 이념과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작품들은 원시 본능에 대한 추구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과 재료의 혁신을 통해 이러한 추구를 실현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조각품에 대한 섬세한 해석을 통해 우리는 그의 예술 이념과 실천을 보다 깊이 고찰할 수 있다.

그의 조각품에 대해 분석해 보면 ‘형태와 기호에 대한 재구와 창조’라는 주제가 수없이 반복되어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의 작품 <달, 태양, 그리고 하나의 별>[참고도판 12]를 살펴 보면 태양, 달 또는 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단순화된 기호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호들은 자연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미로 마음 속의 추상적 표현으로 전환되었다. 미로의 작품은 간결한 선과 형태, 그리고 선명한 색채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원, 별과 같은 고전 기호에 대한 현대적 해석도 포함된다. 원형은 흔히 태양, 생명 및 에너지 등과 연결되며 별은 흔히 꿈, 신비로움 및 길잡이 등과 연관된다. 미로는 그의 창작 과정에서 이런 고전 기호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여 새로운 언어로 전환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예술가 내심 세계의 깊은 함의를 느끼도록 하였다.



참고도판 12) 호안 미로, 달, 태양, 그리고 하나의 별,  
브론즈 및 칠해진 시멘트, 364×104×97cm, 1968

미로는 이런 방식으로 원시적 예술감을 전달하였으며 원시사회의 토템 숭

배와 자연 숭배 정신을 투영하였다. 그의 조각품에는 원시사회로부터 받은 영감과 현대적 예술 기법의 조화롭게 결합되었으며 그 속에 담긴 원시적 신화 기호는 인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그의 깊은 탐색과 성찰의 표징이다. 고대 문명과 신화 전설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그는 창작 과정에서 흔히 달, 별, 새 등과 같은 요소들을 사용하였다. 미로의 미술 세계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재해석과 재창조되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주와 존재에 대한 그의 철학적인 사고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상징 의미가 가득한 작품을 통해 미로는 관객들을 유구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진실적이면서도 초현실적인 예술 영역으로 이끌었다.

미로의 조각품에 나타난 원시적 신화 기호와 형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자면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이 미로 예술에 대한 해독과 평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브르통은 초현실주의운동의 선구자로서 미로를 “최고의 초현실주의 화가”로 아주 높이 평가하였다. 이는 미로 작품의 초현실적 특징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시 신화와 초현실적 요소 사이의 밀접한 융합을 제시하였다.<sup>35)</sup> 미로는 어린이의 상상력에 대해 끊임없이 추구하였는데 브르통은 미로의 이런 ‘발전 정체’의 상태를 순진한 시각에 대한 고수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시각은 일상생활의 표면에 깊이 숨겨진 더욱 심오한 현실을 드러냈다고 하였다. 우리는 미로의 조각품 <새>[참고도판 13]에서 이런 상상력과 현실 세계가 결합된 생동한 표현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기성품의 조합과 창의성을 재결합함으로써 예술가의 창작 흥미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작품[참고도판 13]은 물품을 재창조하는 미로의 정교한 구상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그의 관심의 표현하고 있다. 작품 속의 깃털 뽑힌 새는 두 눈이 아래로 쳐져있고 입을 썉 벌린 채 경악한 모습

---

35)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Clement-Greenberg>, (최종 검색 날짜 : 2023.11.8)

을 취하고 있다. 이런 디자인은 예술가의 유머러스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카탈루냐 대중들의 침묵,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갈망을 투영하였다. 이는 카탈루냐 대중들의 마음 속에 깊은 문화적 의의와 사회적 의의를 남겼다.



참고도판 13) 호안 미로, <새((L'Oisea))>, 브론즈 및 석탄 슬래그, 60.64×40.96×40.01cm, 1970

미로의 이런 표현 방식은 조각 <달의 새>[참고도판 14]에서 더 두드러진다. 이 작품에서는 단순한 선, 간결한 형태 및 상징적 의미가 깊은 기호를 통해 원시 미술의 영향력과 현대 미술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독특한 예술 양식을 형성하였다. 아래 원시적 신화 기호 및 형상이 미로의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미로의 예술적 창작은 흔히 자연과 우주에 대한 깊은 탐구로 해석된다. 그는 여러 편의 조각품에서 태양, 달, 별과 새 등 기호들은 사용하였는데 이런 요소들은 여러 가지 원시 문화에서 풍부한 신화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달은 변화, 여성의 신성함과 시간의 주기성을 상징하며 새는 일반적으로 자유, 영혼의 전달자 또는 신비로운 영역으로의 안내자를 상징한다. 작품[참고도판 14]는 이러한 기호들의 융합을 통해 초현실적인 추상적 사유를 표현하였다



참고도판 14) 호안 미로, <달의 새((Moondird))>, 브론즈, 18.4×16.5×11.4cm, 1946

미로의 창작 과정에는 흔히 기호의 전환과 재창조가 포함된다. 즉 그는 전통적인 신화 기호에 새로운 시각과 내용을 주입시켰다. 작품[참고도판 14]에서 미로는 자연계의 구체적인 형태를 직접적으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달과 새의 개념을 추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원시 신화 및 현대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참고도판 14]는 예술가 내면세계의 투영일 뿐만 아니라 다원적인 기호 네트워크로써 관객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느낌과 연상을 탐색할 수 있다.

미로의 원시 신화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은 고립된 창조 행위가 아닌 그의 수많은 미술 창작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여러 작품에서 모두 원시와 현대, 자연과 인공, 직관과 추상의 독특한 균형을 추구하였다. [참고도판 14]에서 융합된 달의 신비로움과 새의 자유 및 그들의 형태와 질감은 모두 이러한 균형에 대한 탐색을 나타내고 있다. 미로의 예술적 성과는 이처럼 보기에 모순되는 요소들을 조화로운 예술 통합체로 융합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조화로우미 앙드레 브르통의 높은 평가를 자아냈던 것이다. 브르통은 그의 날카로운 비판적 안목으로 미로 작품의 핵심적 가치인 초현실주의 정신의 진정한 구현을 알아보았다. 미로는 작품 [참고도판 14]를 통해 초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추구를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내재화 및 조각을 매개체로 한 구체적인 미술 실천을 표현하였다. 이로써 초현실주의 미술사에서의 미로의 중요한 지위를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탐색하고 한계를 돌파하는 그의 예술적 용기를 강조하였다.

미로의 조각은 시각적인 표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관객들의 내재된 정서에 감동을 안겨 주었다. [참고도판 14]는 심층적인 상징을 유발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자신의 본성과 존재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미로는 원시 기호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적 언어를 창조하였다. 따라서 그의 조각품은 고대와 현대, 현실과 환상, 물질과 정신세계를 이어주는 뉴대로 되었다.

미로의 [참고도판 14]는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는 대화를 통해 영원한 존재로 되었으며 관객들과 무한한 상호 작용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들은 저마다 개인적인 계시를 받아 서로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미로의 예술은 단순한 감상의 장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마음의 공간까지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

원시적 메아리와 현대적 외침은 서로 융합되어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로에 대한 앙드레 브르통의 비평은 작품 [참고도판 14]를 이해하는 데 튼실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로의 예술이 추구하는 방향, 즉 원시와 현대, 초현실과 현실이 결합된 예술 여정을 제시하였다. 미로는 조각을 매개물로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무한한 상상을 보여주었으며 개인적 예술 언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참고도판 14]와 같은 작품을 통해 한 예술가가 특정 형식 또는 양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의 창의력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표현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유로운 탐색과 표현은 바로 초현실주의가 제창하는 핵심 정신이다. 브르통 및 기타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은 줄곧 전통 미술의 속박에서 벗어나 잠재의식과 꿈에 직접 닿을 수 있는 표현 형식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미로의 [참고도판 14]는 초현실주의에 대한 대표적 연구일 뿐만 아니라 초현실주의 미술 운동 정신의 체현이기도 하다.

미로의 미술 창작은 초현실주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외에 그는 이베리아 반도의 고전 예술, 특히 고전 조각 및 암각화의 영향도 깊이 받았다. 그의 작품에는 흔히 원시 예술의 간결함과 직접성이 드러나는데, 이런 풍격은 현대 미술의 복잡성 및 추상성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고전과 현대, 간결함과 복잡함을 결합한 미로의 창작 풍격은 그의 작품으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이끌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강한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초현실주의의 다른 한 면은 꿈과 무의식에 대한 탐색이다. 작품[참고도판 14]에서는 상징과 추상을 통해 이런 탐색을 표현하고 있다. 상징적 의미로 가득찬 범상치 않은 미로의 작품들은 늘 관객들의 상상력에 도전하며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개인적 해석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예술적 경험은 상호적

인 것으로 개개인이 작품으로부터 느낀 의미는 완전 다를 수 있다.

미로는 창작 과정에서 늘 초현실주의의 경계를 초월하여 더욱 본능적이며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 영역으로 진입하고자 애써왔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이처럼 독특하고 표현력이 풍부하다. 그의 창조성은 형태, 색채 및 재료의 사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을 결합함으로써 관객들의 정서와 사색을 유발하는 작품을 창조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참고도판 14]에 대한 앙드레 브르통의 평가는 미로 작품의 초현실주의적 가치와 미로가 작품을 통해 전개한 문화 및 철학적 대화를 제시하였다. 이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는 미로의 미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20세기 미술 영역에서 꿈, 무의식과 자유의 표현에 대한 초현실주의자의 새로운 탐색을 고찰해 볼 수 있다.

### 3. 현대에 융합된 원시 기호—우고 론디노네

우고 론디노네<sup>36)</sup>의 미술 생애는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살펴 보면 색채, 형태 및 재료에 대한 다양한 실험 탐구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이 작품들은 훗날 그의 전형적인 스타일, 즉 작품 속에 깃든 복잡한 감정과 깊은 주제를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의 예술적 표현에 대한 직감과 원재료에 대한 선호도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론디노네는 미술 전공을 공부하는 동안 전통 회화 및 조각부터 사진, 설치미술까지 다양한 형식과 기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였는데 이는 그의 작품 창작에 있어서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 형식 및 재료의 선정에 있어서 그는 나무, 돌, 금속, 심지어 일상용품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미술의 통적인 경계를 타파하고 원시적이면서도 직관적인 미학을 선보이고 있다.

론디노네 작품 속의 기호는 시각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과 사상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는 기호를 사용함에 있어서 독특한 풍격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예술 표현의 경계를 넘어서서 관객들과 직접적으로 감정 및 사상을 소통하는 강력한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색채가 화려한 큰 바위를 쌓아 올려 관객들에게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가져다 준 론디노네의 작품 <일곱 개의 마법 산>[참고도판 15]는 힘의 강과 약을 상징하며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자연 요소로 만들어진 기호는 자연과 인류문명, 개인사회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론디노네는 자신의 미술 작품에서 ‘돌’은 항상 중요한 존재이자 재료이며 상징이라고 했다. 특히 2013년 록펠러 광장에 설치한 ‘인간본성’과 2016년

---

36)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 1964년 스위스 브룬넨 출생)는 설치미술에 능한 작가로서 비엔나의 Hochschule für angewandte Kunst에서 공부했다. 그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예술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1998년 뉴욕으로 이주하여 오늘날까지 활동 중이다.

네바다 사막에 설치한 [참고도판 15] 이 두 작품에서는 돌의 이미지를 주요 모티브로 삼고 있다. 이 작품들은 자연 속의 돌을 미와 명상의 대상으로 삼아 관람자로 하여금 외부 세계와 내부 시각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개인적 명상 상태에 진입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론디노네는 조각 예술을 통해 물리적 현상이든 형이상학적 현상이든 ‘관람’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sup>37)</sup>



참고도판14) 우고 론디노네, 〈일곱 개의 마법 산(Seven Magic Mountains)〉, 높이 10m, 돌 색칠, 2014

그의 그림과 설치미술 작품에는 흔히 원, 십자가, 별 등과 같이 단순화된 도형이나 기호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즉 원은 완전성과 영구성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고난과 구원을 의미한다. 론디노네는 이러한 기호들을 통해 인간 감정의 복잡성과 우주의 깊이를 탐구하였다. 기호의 사용은 시공간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반영되는데, 그는 전통적

37) [https://static.frieze.com/files/event/press/2020-09\\_PR\\_Rondinone\\_EN\\_2.pdf](https://static.frieze.com/files/event/press/2020-09_PR_Rondinone_EN_2.pdf)  
(최종 검색 날짜 : 2023.11.19)

인 개념을 타파하고 초현실적이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한정된 시공간을 뛰어넘는 보편화된 작품을 창작한다. 론디노네의 예술 실천에서 원시성에 대한 탐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제이며, 자연 요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독특한 활용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도판 15) 우고 론디노네, <월출(Moonrise. East. June)>, 알루미늄, 페인트, 목재, 120×200×110 cm, 2006

우고 론디노네의 <월출>[참고도판 16]은 매 한 점 작품이 1년 12개월 중의 한 달을 상징하는 깊은 상징의미를 담고 있는 소고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각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뿐만 아니라 정서 및 사상 측면에서도 깊은 영향을 지니고 있다. 매 점 작품의 머리는 그 독특한 표정과 특징을 통해

달마다 달라지는 달의 변화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은 시간과 감정에 대한 론디노네의 심도 있는 탐구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 스타일과 원시 미술의 특징을 결합하는 그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론디노네는 점토나 석고와 같은 천연 재료를 선호하는데 이러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작품의 원시성 및 작품과 자연의 밀접한 관계를 한 층 더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현대 기술과 기법을 사용하여 원시적 천연 재료를 형상화함으로써 옛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시각효과를 창출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간과 문화를 뛰어 넘는 예술성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sup>38)</sup>

<월출>시리즈의 매 점 작품은 시간의 흐름과 달의 주기적 변화를 상징한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꿈을 자연의 상징인 달에 걸어왔다. 론디노네는 이 시리즈를 통해 인간 감정의 깊이와 복잡성,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구하였다. 매달마다 다른 감정 상태를 상징하는 작품을 보면서 관람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리즈는 또한 다양한 문화권에서 달에 관한 신화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언급을 암시하기도 한다. 많은 문화권에서 달은 여성, 꿈, 직관 및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 편으로 동양 문화권에서 달은 종종 시나 신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고대 시인 이태백과 두보의 시구에서는 상징적 이미지로 달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동양 문학 및 예술에 있어서 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구에서 달은 어두운 밤의 한 줄기 빛일 뿐만 아니라 감정과 사상의 표현이기도 하다. 즉 삶, 사랑, 외로움 및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

38) [https://www.kukjegallery.com/upload/press/pr\\_earthing\\_2b80ecc4a6.pdf](https://www.kukjegallery.com/upload/press/pr_earthing_2b80ecc4a6.pdf). (최종 검색 날짜 : 2023.11.30)

다른 한 편으로 서양 문화에서도 달은 중요한 상징적 이미지이다. 특히 서양 문학작품 속에서 달은 종종 낭만적이고 신비하며 예측할 수 없는 힘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달은 낭만적인 사랑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상징하며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달의 여신은 아름다움, 마법 및 여성의 힘을 상징한다.<sup>39)</sup>

론디노네의 작품은 이러한 고대 신앙과 현대인의 경험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변형될 것인지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참고도판 16] 작품 속에는 시간, 자연, 문화 및 인간 감정에 대한 론디노네의 깊은 탐구가 깃들여 있다. 이 작품들은 시각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뿐만 아니라 그의 상징적 의미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고 있다. 이는 고대의 기호와 현대의 예술적 표현 방식을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세대를 뛰어넘는 독특한 예술적 언어를 창작하였다. 이 작품들은 관람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미학적 향락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정서 및 사상면에서의 도전으로 관람자들로 하여금 자신과 주변 세계의 관계를 돌이켜 보게 한다.

그의 조각 및 설치미술 작품에는 돌, 나무, 구름과 같은 자연 요소들을 직접 참조하거나 추상적으로 재현하여 현대적 재료와 기법으로 재해석 또는 재구하고 있다[참고도판 17]. 이러한 원시적 표현은 단순한 자연의 재현이 아니라 현대 미술 언어를 통해 자연의 본질에 대해 재정립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작 방식을 통해 관람자들로 하여금 현대와 원시 사이에서 특유한 연결 고리를 찾아냄으로써 자연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해 사고하게 한다.

---

39) 김지영, 손현. 「동서양 시에 나타난 달의 이미지 비교 연구 - 중국의 서정적 상상력과 서양의 신화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100호, 2022, pp.285-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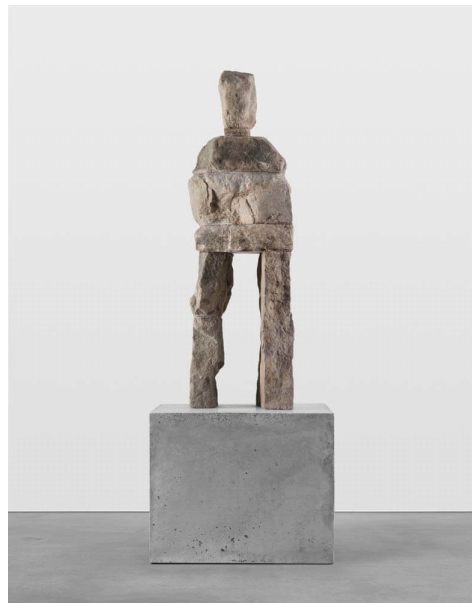
참고도판 16) 우고 론디노네, <우리는 뜨거운 발로 사막을 달리며, 모두가 빛나고 있고 우리 얼굴은 일그러져 보인다>, 147×380×161 cm, 강철, 콘크리트, 모래, 자갈, 2008

론디노네는 원시성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주제와 현대 생활의 복잡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작품 속에서 원시성은 현대 사회 및 문명을 반성하여 현대 생활 속에서 자연에 대한 갈망과 상실, 그리고 원시 상태를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조는 원시성과 현대성 사이의 텐션을 보여주며 자연 및 문명에 대한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미술 작품에서 원시성에 대한 탐구는 시간과 기억을 다루는 데에서도 반영되는데 관람자들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 기억과 현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사고하도록 한다. 이러한 시간적 차원은 원시성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즉 원시성이란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일 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의 역사 및 단체 기억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론디노네의 작품은 자연의 형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론디노네의 예술적 실천에서 원시성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자연적 요소의 사용과 모방을 통해 자연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표현하고, 현대 생활의 복잡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원시적 표현을 사용한 작품은 단순한 시각적 미학을 뛰어 넘어 관람자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에까지 이른다. 론디노네의 예술 세계에서 원시성은 과거와 현재, 자연과 문명, 개인과 집단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로서 관람자들에게 독특한 예술적 체험을 선사한다.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 <더 킨>(참고도판17)”를 살펴 보면, 외형뿐만 아니라 원시성과 현대성, 자연과 인간 사이의 텐션에 이르기까지 모두 강력한 시각적 대조 및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술적 방법으로 원시성과 현대성을 융합하여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론디노네의 작품은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 작품에서 론디노네는 물리적 측면에서 자연을 모방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측면에서도 자연의 본질을 포착했다.



참고도판 17) 우고 론디노네, <더 킨(The keen)>, 블루스톤, 콘크리트, 스틸 46×135×36 cm, 2013

론디노네의 작품은 직관적인 느낌과 즉각적인 경험을 강조하는데 이는 관

람자의 감각을 직접 자극하여 강한 정서 및 사상 공명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말하는 직관적인 표현은 복잡한 이론이나 숨겨진 상징적 이미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와 질감 등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각품의 과장된 형태와 강렬한 색채 대조는 관람자들의 시각 및 정서적 반응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각적 체험뿐만 아니라 오감과 정서적으로도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직관적인 예술적 표현은 론디노네의 예술 철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의 작품은 개인 경험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과 관찰이 작품의 주제와 표현 방식으로 이어진 것이다. 론디노네의 예술은 삶, 사랑, 외로움, 죽음 등과 같이 심각한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직관적인 예술 형식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론디노네의 작품은 시각적인 전시일 뿐만 아니라 정서 및 사상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는데 이는 세계에 대한 작가의 이해와 개인 감정의 반영이다.<sup>40)</sup>

이 외에 그의 예술 철학은 작품의 시공간적 감각에 대한 처리 방식에서도 반영된다. 그는 종종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타파하고 몽환적이며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러한 처리 방식은 작품으로 하여금 특정 시공간적 배경을 초월하여 관람자들이 보다 넓고 깊은 사색의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초현실적인 시공간적 감각, 그리고 직관적인 표현이 결합되어 론디노네의 작품으로 하여금 더 넓고 더 깊은 주제를 탐구하는 매개체가 되도록 하였다.

직관적인 표현과 심오한 예술적 철학은 론디노네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의 작품은 관람자의 감각 및 감정에 직접적으로 닿아 강렬한 예술적 체험을 선사한다. 이러한 경험은 피상적인 시각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삶과

---

40) 이영희. 「World Topic/해외미술 \_ France< THE THIRD MIND>-우고 론디노네의 작가들」. 『더원미술세계』, 2007, pp.150-151.

감정,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이기도 하다. 직관적인 표현성과 심오한 예술적 철학으로 인해 그의 작품들은 관람자들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창구가 되었다.

론디노네의 작품은 시각적으로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정서 및 철학적 차원에서도 깊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색상, 형태, 재료에 대한 섬세한 사용과 기호, 원시성 및 직관성에 대한 심오한 탐구가 결합되어 론디노네의 독특한 예술적 언어를 형성하였다. 이 언어는 전통적 예술의 경계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들로 하여금 인간의 감정, 존재 및 시간 등과 같은 깊은 주제를 탐구하는 대표적 매개체가 되도록 하였다.

론디노네는 다양한 매개체와 재료에 대한 대담한 실험을 통해 독창적이면서도 심오한 예술적 풍격을 창조했다. 그의 작품은 현대적이면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함을 지니고 있는데 이처럼 독특한 예술적 풍격으로 그는 현대 미술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시각적인 충격을 안겨다 줄 뿐만 아니라 사상 및 정서 면에서도 도전적인 작품으로서 관람자들로 하여금 자신과 주변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은 독창적인 박싱과 심오한 사상으로 국제미술계에서 폭넓은 인정과 찬사를 받고 있다. 그의 작품은 예술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삶과 감정, 인간 존재에 대한 심오한 탐구를 담고 있다.

#### 4. 선행 작가와 본인 작품의 비교분석

현대 미술의 창작 과정에서 미술가들은 흔히 미술 거장들과 말 없는 대화를 나누곤 한다. 이러한 대화는 현대 미술가에 대한 미술 거장들의 일방적인 영향이 아닌 서로 배움과 깨달음을 주고받는 과정이다. 마리노 마리니, 권진규, 호안 미로 및 샘 듀란트의 작품은 본인에게 다양한 창작 영감과 다원적 사고를 제공해 주었다.

예술 표현의 핵심 요소인 원시성은 흔히 본능, 자연 및 인류 초기의 문화 표현과 연관된다. 마리노 마리니의 작품에서 말과 기수라는 원시 주제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힘과 정서의 격동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원시 주제에 대한 현대적 처리는 전통적 이미지를 재해석함으로써 현대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 인가하는 본인의 창작적 사고에 자극을 주었다.

기호성은 예술에서 복잡한 개념과 정서를 전달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권진규의 작품은 추상적 형식을 통해 자연 요소로 하여금 기호성 표현을 지니게 하였고 미로의 초현실주의 조각은 몽환적인 상징적 세계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조각 작품에서 어떻게 본인의 구상과 기호성을 보다 깊이 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사고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러 문화에서의 신성한 동물(神獸)의 상징적 의미를 탐구하게 하였다. 직관성이란 예술 작품이 직접적으로 관객의 감각기관과 정서에 공감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리킨다.

마리니와 권진규의 작품은 가장 오래된 주제라도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현대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즉 고대 신화의 생물이 현대 사회의 은유로 전환되거나 인류 본성과 사회 발전의 수단으로써 탐색이 가능하다.

본인은 예술 창작에서 이러한 초현실적 표현력을 추구하고 초현실주의

요소와 원시 신화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결합하여 상징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관객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조각을 창작하였다. 미로는 추상적 언어를 통해 관객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넘치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도록 하였다. 이는 본인에게 있어서 도전이자 기회로서 본인의 창작이 전통적 속박을 벗어난 상황에서 생각과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은 그의 독특한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여 현대 생활, 자연 및 시공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탐구를 보여주었으며 원시적 상징과 문화유산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에서 일상생활과 자연 속 평범한 것들을 깊은 의미와 원시적 상징이 담긴 예술적 표현으로 변화시킨 점은 창작에 대한 본인의 사고를 자극했다. 론디노네는 단순한 자연 요소를 깊은 의미가 있는 예술 작품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본인으로 하여금 내 작품에서 현대 사회의 깊은 의미를 찾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본인은 비슷한 방식을 통해 현대 사회의 복잡성에 대해 탐구하고 표현하고자 한다. 론디노네로부터 영감을 받아 본인은 작품에서 현대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를 결합하여 시공간의 교차에 대해 탐구하였으며 이것이 인간의 인식과 감정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작품을 창조함으로써 관객들이 자연, 시간, 그리고 개인적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본인은 고대 신화 속의 생물을 현대 사회의 은유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 현대 문화 속에서의 그들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환은 형식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것이다. 이는 원시 문화 속에서 생물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현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언어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본인의 조각이 인류 본성과 사회의 발전을 논의하는 수단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주제에 대한 관객들의 사고를 불러일으키기를 바란다.

아래는 작품의 주제, 형식, 재료 및 상징성 측면에 따라 본인의 작품과 선행 작가들의 작품의 연관성을 비교한 것이다.

작가	작품 주제	작품 형식	작품 재료	기호성
마리노 마리니	기사와 말의 형상,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주로 집중	조각	청동, 나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의 이상을 표현하고 자유와 힘의 상징
권진규	인물, 동물 및 자연	조각 및 도자기	석고, 도자기, 목재	한국 전통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냄
호안 미로	추상적 형태, 초현실주의	회화, 조각 및 도자기	유화, 캔버스, 도자기, 금속	추상과 초현실주의의 상징, 몽환과 무의식을 강조
우고 룬디노네	현대 생활, 자연, 시간 및 공간의 관계	조각, 설치 미술, 멀티미디어 작품	돌, 빛, 비디오, 오디오 등	현대인과 자연, 시간 및 공간의 관계 탐구
엔칭	신화 속 원시적 상징	조각	돌, 금속, 모래	현대 사회에서의 원시 신화 상징의 의미

참고도판 19) 선행 작가와 본인작품의 비교분석표

창작 과정에서 본인은 네 명의 미술가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신화 주제와 상징 요소의 처리 면에서 미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통해 시간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으며 이러한 이야기는 그 시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깊은 사고를 자아내고 있다. 본인의 작품 세계에서는 이러한 역사 이야기의 매력을 포착하고 현대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전환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본인은 이러한 고전 기호와 신성한 동물을 새로운 형식으로 현재의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고전 요소와 현대 기술 및 재료를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새로운 효과를 생성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인의 조각 작품에는 직관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본인이 미술은 직접적으로 관객들과 소통해야 하며 통역이나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관성은 조각품의 형태, 질감, 색채 및 이들의 공간에서의 배치에서 기원한다. 즉 본인이 예술 창작과정에서 추구하는 것은 원시성, 기호성과 직관성이 함께 하는 조각 언어이다. 본인은 자신의 조각 작품이 과거와 현재, 문화와 사회, 예술가와 관객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조각을 통해 사람들에게 성찰의 공간, 정서의 출구, 사고의 시작점을 구축하고자 한다.

## IV. 본인의 작품분석

### 1. 신화 기호를 담은 조각 작품의 원천들

#### 1) 원시 조각과 아프리카 조각

‘원시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primus’에서 온 것인데 ‘초기의, 기원의, 시원의’라는 의미 외에 ‘개화되지 않은, 소박한, 초보적인’이라는 뜻도 포함된다.<sup>41)</sup> 원시 조각 예술은 인류 예술의 초기 형식으로 그 특징은 형상에 대한 직관적인 창조와 정신 의상(意象)의 심층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예술 형식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기호성을 가지며 가장 직접적이고 생동적인 형상일지라도 심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현대 미술에서 원시 조각의 영향을 논의할 때 주로 기호성과 직관성 이 두 개의 키워드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원시 조각 예술의 기호성은 주로 일상생활, 종교 신앙과 사회 문화 등 주체의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원시 예술의 창작자는 일반적으로 상징과 은유의 방식을 통해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느낌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동물의 형상으로 특정한 힘 또는 질을 상징하거나 추상적인 기하 형태로 정신 상태나 우주관을 상징하기도 한다.<sup>42)</sup> 이러한 상징의 사용은 원시 조각 예술에 깊은 문화적 의미와 정신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수많은 현대 미술가들이 창작 과정에서 원시 예술의 기호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기호와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창작 사상과 정서적 체험을 표현하였다.<sup>43)</sup>

41)이일, 「아프리카 미술의 정체」, 『아프리카 미술전도록』, 서울: 중앙일보사, 1987.p.6.

42) Fraser, D., Adrian, A., , G., Klausen, A. Lewis, P., , T., & , P. Discussion of a Problem Posed by Adriaan G. H. Claerhout: *The Concept of Primitive Applied to Art*. Current Anthropology, 6, 1965,pp. 432-438.

원시 조각 예술의 직관성은 형상과 형식의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창조로 구현된다. 원시 미술가는 일반적으로 직관적, 자연적인 방식으로 형상을 창조하였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생동감과 원시성으로 넘친다. 재료에 대한 직접적인 처리, 형상의 직관적인 표현은 작품으로 하여금 강렬한 생명력과 감화력을 갖게 하였다. 현대 미술에서 많은 미술가들이 이러한 직관적인 창작 방식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과도한 이론의 속박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예술 이념과 창작의 영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참고도판 20) 로센의 비너스, 프랑스, 54×36×15.5 cm, BC20000~BC18000<sup>44)</sup>

43) Torgovnick, M., 1989. Making Primitive Art High Art. Poetics Today, 10, p. 299.

44) <https://history-of-art.tistory.com/1> (최종 검색 날짜:2023.7.10)



참고도판 21) 빌렌도르프, 비너스, 7×7×11 cm, 구석기시대<sup>45)</sup>

원시 조각 예술은 현대 미술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독특한 기호성과 직관성은 현대 미술가에게 풍부한 창작의 영감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술 표현 방법을 개척하도록 하였다. 원시 조각 예술의 과정을 수용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현대 미술가들은 자신의 미술적 시각을 탐색하였으며 이로써 깊이 있되 넓이 있는 걸출한 미술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원시 미술에서 기호와 형상의 정수를 흡수하고 작품의 문화적 기초와 상징의 수준을 더 풍부히 하였다. 이와 동시에 원시 미술가들의 형태에 대한 직관적인 처리에 대한 모방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자극하여 전통 미술의 한계에 도전하고 예술 표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조각 예술 분야에서 많은 현대 조각가들이 원시 조각 예술에 의해 고취되었다. 예를 들어, 저명 조각가 헨리 무어는 원시 미술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

---

45) <http://brainartkid.com/community04/1013> (최종 검색 날짜:2023.10.8)

으며 그의 작품에는 원시 형태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직관적 포착이 드러난다. 브랑쿠시의 작품에도 원시 미술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는 직관적인 기법으로 인간성과 정서를 표현하였으며 원시 미술의 심오한 영향을 강조하였다.<sup>46)</sup>



참고도판 22) 헨리 무어, <기댄 형상: 축제(Reclining Figure: Festival)>, 브론즈, 1951

---

46) 김석, 『한눈에 보는 조각사: 원시조각에서 설치미술까지』, 지앤씨 미디어, 2005, p. 227. 최초의 추상조각가인 블랑쿠시(Constantin Brancusi, 1876 - 1957) (참도판 22)〈키스: Kiss〉, 파리 모파르나스 묘지, 1909)는 그의 예술성은 입체주의, 구성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그리고 1950년 이후의 앵포르멜과 액션 페인팅, 환경미술, 개념 미술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참고도판 23) 블랑쿠시. 〈키스〉, 돌, 28×26×25.5cm, 1909

원시 조각 예술은 현대 미술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과 영감을 제공하였다. 여러 미술가들의 창작 이념과 창작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의 발전과 혁신을 추진하였다. 미술 창작 기법, 사유 방식 또는 미술작품의 이해와 해석에서 원시 조각 예술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원시 조각 예술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

원시 조각의 직관성과 기호성을 통해 현대 미술의 중요한 주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미술에서 신체, 성별, 권력, 사회와 환경 등 주제에 대한 토론은 모두 원시 조각 예술의 차원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신비한 동물 형상, 출산과 죽음의 상징 및

자연과 사회에 대한 표현과 같은 원시 조각 예술 속의 형상과 기호는 현대 예술가들에게 이러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표현 방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미술 창작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 문화 심지어 인간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 망라된다. 따라서 현대 미술에 대한 원시 조각 예술의 깊으면서도 지속적인 영향은 의심할 바 없다.

아프리카 조각 예술은 세계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대인들은 아프리카 미술을 통해 ‘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된다. 원시 예술에 대한 오늘날의 심미는 질박한 자연주의와 심플하고 단순함을 특색으로 하는 서아프리카 흑인 조각 예술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마이클 새들러(Michael Ernest Sadler)는 일찍이 서아프리카 미술은 유럽 미술의 전통과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힘을 보인다고 강조하였다. 로저 프라이는 흑인 조각에 대한 고전적 문장에서 이를 더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흑인 조각은 ‘탁월한 조각’이며 ‘어떤 수준에서는 우리가 중세기에 창조한 모든 예술을 초월한다’고 하였다.<sup>47)</sup>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러한 조각이 조각의 본질적 특색을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아프리카 미술은 3차원 형식의 창작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파악하였다. 이에 비해 고대 유럽의 조각은 대부분 얕은 부조로 이러한 효과를 실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아프리카 미술을 20세기 이후의 기초로 이해하였다.

20세기 유럽 미술의 새로운 시각적 사고에 혁명적 전환점이 된 것은 아프리카 원시 조각이었다. 아프리카 원시 조각은 종교적 사상과 정신적 경험으로 깊은 영감을 받았으며 책략과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미술은 독특한 그들만의 종속성, 주술성, 사회성에 바탕을 두었으며 자연

---

47) Arthur C. Danto, 王春辰 译 『艺术的终结之后:当代艺术与历史的界限』, 江苏人民出版社. 2007, pp. 118-119.

의 재현만이 아닌 독특한 조형 세계를 보인다.<sup>48)</sup>

아프리카인의 생활 역시 생활 자체가 예술로 여겨지며 생활과 예술이 밀접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나누어 질 수 없다. 얼굴에는 무늬가 다른 그림을 그리고 몸의 각 부분에는 색이 들어간 그림을 그리고 깃털, 금속으로 제작한 머리 장식을 단다.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명절에 착용하는 복장, 먹는 음식과 도자기 항아리, 그릇과 병의 모양, 서로 다른 재료로 제작된 가면과 조각이 있다. 서로 다른 양식의 회화, 조각에서 아프리카인들은 각각의 재료와 기구로 제작한 물건들을 통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였다.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재료로 주변의 모든 사물을 장식하였다. 저명한 경제학자 칼 폴라니(Karl Polanyi)<sup>49)</sup>가 한 “경제는 사회 속에 포함돼 있다”<sup>50)</sup>라는 말로 형용하자면, 아프리카 미술도 “사회 속에 포함돼 있다”. 특히 신화 기호의 표현 면에서 독특한 예술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신화 기호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여러 문화, 신앙과 사회구조의 매개체로, 조각에서 이러한 것들의 구현은 직관적, 상징성, 원시성의 방식으로 아프리카인의 생활, 우주와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 준다.

아프리카 조각 속의 신화 기호는 우선 생명력의 상징과 존중에서 구현된다. 아프리카의 여러 전통 사회에서 생명력은 우주의 중심 역량으로 여겨지며, 이는 조각에서 흔히 모성 또는 출산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여러 지역의 조각에서 자주 어머니와 아이의 형상이 등장하며 이러한 형상은 생명력의 연속을 상징하는데 사용된다. 모자상의 제작 목적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 건강과 다산을 위한 것이다. 이는 생명, 성장과 출산을 대표하며, 특히 생명, 성장과 출산을 책임지는 여성의 몸을 강조한다. 특히

---

48) 김미주, 「요루바 머리탈(Yoruba Headdress)을 통해서 본 아프리카의 예술」, 『예술연구』, 15, 2009, pp.25-36.

49) 칼 폴라니(Karl Paul Polanyi, 1886-1964년), 경제사학자, 경제인류학자, 경제사회학자

50) 찰스, 『칼 폴라니의 '포함'과 '돌출'이론』 중외기업가, 7, 2016, pp.259-260.

가슴, 배와 생식기를 과도하게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기관이 부족 번영의 원천이기 때문이다.<sup>51)</sup> 출산 숭배는 아프리카 대륙의 전통 문화로, 아프리카 사회는 생산력이 낮고 인구의 수가 부족의 힘을 결정한다. 또한 아프리카 전통 종교에서는 자손이 이어져야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현세와 이어져 윤회를 통해 환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모자, 임신부 등의 형상이 아프리카 조각 예술에 자주 등장하며 (참고도판 24) 이러한 형상은 대담한 생식기관의 표현을 통해 아프리카인의 생명에 대한 동경과 자손 번영에 대한 찬양을 나타낸다.



참고도판 24) 아프리카 미술 나무 조각 16×16×39cm

아프리카 조각의 신화 기호는 또한 사회질서와 도덕규범의 상징적 표현에도

51) 찰스 웬턴크, 『원시미술과 현대미술』, 문하, 1995, p.40.

구현된다. 아프리카의 여러 사회에서 신화와 종교는 사회 질서와 도덕 규범의 원천으로 여겨지며, 이는 조각 속에서 일반적으로 신, 조상 또는 사회 지도자의 표현으로 구현된다.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는 자연 숭배와 조상 숭배를 핵심으로 하며, 죽음을 생명의 끝이 아니라고 여긴다. 신봉하는 토템을 조각이나 가면으로 만들어 신이나 조상 영혼의 영생을 상징하는 성물로 삼아 사람과 ‘신’, ‘영혼’의 존재와 소통하였다. 이러한 조각 작품은 아프리카인들의 사회 질서와 도덕규범에 대한 존중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비한 힘과 신성한 권위에 대한 경외를 나타낸 것이다.

아프리카 조각에 담긴 신화 기호는 아프리카인의 생활, 자연과 사회에 대한 경외와 통찰을 깊이 반영하였다. 이러한 신화 기호는 직관적이고 상징적인 기법으로 아프리카인의 생활 철학과 생명, 자연과 사회질서에 대한 존중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신화 기호는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아프리카 전통 사회의 문화, 종교와 사회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동물 형상은 아프리카인의 자연환경에 대한 직관적 반영이자, 신과 신비한 힘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동일하게 임신부와 어머니의 형상은 아프리카인의 생명력에 대한 숭배를 구현한 것이며 그들의 모계 사회구조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신화 기호의 다양한 내용과 심층적 의미는 아프리카 조각 예술에 매우 높은 예술적 가치와 인류학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아프리카 조각 속의 신화 기호는 독특한 예술 형식과 풍부한 문화적 기초로 전 세계 예술가와 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신화 기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화유산을 깊이 탐색하도록 자극하고 자연과 사회의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기초로 새로운 예술적 맥락과 표현을 형성하게 한다. 현대미술에서 아프리카의 신화 기호는 예술

가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 주었으며 인류의 내면세계와 사회 현실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불러 왔다.

아프리카 미술 중 신화 기호는 직관성, 상징성과 원시성의 표현을 통해 아프리카인의 생활, 우주와 정신 분야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선보여 세계 예술사에서 아프리카 조각 예술의 독특한 지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신화 기호는 전 세계 예술가와 학자들에게 새로운 해석과 인류의 경험을 표현하는 시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대 예술의 변화를 위한 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호의 차원에서 아프리카 조각 신화 형상의 직관성과 원시성을 이해하려면 우선 아프리카 미술의 창작 맥락과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조각을 포함한 아프리카 미술은 일반적으로 종교 의식과 부족 행사에 사용되며 정보를 전달하고 관념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직접적으로 부족과 일상생활과 대면하는 예술 형식은 아프리카 조각이 표현 방식에서 강렬한 직관성과 원시성의 특징을 갖는다.

아프리카 조각의 신화 형상은, 이러한 직관성, 원시성의 중요한 매개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신, 조상, 자연, 삶과 죽음, 출산, 사회의 질서 등과 같은 생활 속의 여러 가지 힘과 원칙을 상징한다. 아프리카 조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임신부와 어머니의 형상은 직관적으로 생명의 탄생과 연속을 상징하며 독수리, 사자, 뱀 등과 같은 동물의 형상은 힘, 권위, 지혜 또는 신비함의 특징을 상징한다[참고도판 25]. 이러한 형상은 단순하게 현실을 모방하거나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로 사람들의 생활, 우주와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현대 조각가 중 한 명으로서 아프리카 조각의 신화 형상 및 직관성과 원시성의 표현 방식은 본인의 창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참고도판 25) 나이지리아 사자, 테라코타, 6×7.75 인치, BC 3세기

아프리카 조각의 신화 형상은 예술 창작 중 상징적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대 예술가는 재창작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 형상과 요소를 모색하고 운용하여 이를 통해 예술 관념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으며 가장 직접적이고 원시적인 방식으로 정보와 정서를 전달한다. 본인은 창작 중 보다 직관적이고 원시적인 표현 방식을 모색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작품을 보다 생활에 가깝게 하고 관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이다.

아프리카 조각의 신화 형상은 아프리카 문화 전통의 일부로, 아프리카인의 자신의 문화 전통에 대한 존중과 계승을 구현하였다. 본인은 창작자로서 자신의 창작에서 문화 전통을 심층적으로 발굴 및 차용하여 자신의 문화기호와 의상(意象)을 작품 속에 융합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로써 독특한 예술 언어와 양식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아프리카 조각의 창작 과정은 일반적으로 신비로움과 의식으로 가득하다. 조각가는 창작가이며 의식의 참여자이자 의식을 이끄는 자이다. 이는 창작의 과정 자체 또한 예술의 한 부분이며 예술의 형식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작의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사고하고 체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창작과정 자체를 작품의 일부로 이해할 수도 있다.

아프리카 조각은 현대 예술가에게 풍부한 창작 영감과 실천적 이념을 제공해준다. 예술작품은 생활의 직접적이고 원시적인 반영일 수 있으며 문화와 사회 및 인간성에 대한 심층적인 상징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조각은 아프리카 미술의 ‘공유된 기호’로서 원시 부족의 사회 교화와 가치의 공동체 의식을 구현한다. 심미적 의미를 초월하여 그 자체가 바로 생활이며 고전 문명과 현대 문명의 은폐성을 타파하고 원시 문명의 체온을 느끼게 하는 한편 자연의 신과의 대화를 체험하게 한다. 조각가로서 아프리카 조각을 배우고 이를 거울삼아 작품에 생활을 반영하면 예술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객과 사회와 더 효과적으로 교류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2) 중국 한나라 조각과 석각

중국 한나라 석조 예술은 본인의 창작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속에 담긴 원시성, 기호성, 직관성은 독특한 미술적 언어를 구축하였다. 특히 광거병(霍去病)<sup>52)</sup> 묘의 석조는 이러한 특징을 담은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무릉(茂陵) 광거병 묘의 석각은 중국 석각 예술에서 최초의 대형 원추 방식의 인물과 동물 형상을 조각한 예술작품으로 석각 자재는 전부 기연산(祁連山)의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산석(山石)의 자연적 형태를 활용하여 돌에 따라 형태를 본뜨고 약간의 부조를 더해 형상이 고졸하고 기법이 간단하다. 중후하고 웅장한 기세로 질박하고 호방한 느낌을 주며 중국 서한 시기의 깊고 웅장하면서도 호방하고 강력한 느낌을 보여준다.<sup>53)</sup> 아래 광거병의 석조

52) 허거병(전140년-전117년), 중국 한조 한무제 시대에 흉노와 대립한 명장.

53) 맹계락, 「무릉의 석각예술」, 『안휘문학(하반월)』, 06, 2010, p.88-91.

예술을 통해 이러한 키워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한나라 석조 예술에서 신화 기호의 풍부한 신화와 상징적 의미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에서 여러 가지 형상은 단순히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풍부한 신화적 색채를 융합하였다. 광거병 묘의 석조 중 돌로 된 말과 호랑이 등은 단지 동물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신화의 색채적 기호로 가득하다. 서 있는 말은 충성과 용맹을 상징하며 광거병의 용맹과 군공을 상징하고 누워 있는 호랑이는 그의 위풍당당함과 강인함을 상징한다. 이러한 신화 기호는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한 대 사회의 가치 관념과 문화 신앙을 구현하였다.

한대의 석조 예술은 상당히 높은 예술적 수준을 표현하였지만 형식과 양식에서는 여전히 원시적이고 질박한 미감을 보존하였다. 광거병 묘 석조의 조각상은 진의 병마용처럼 사실적인 양식이 없으며 석재 자체의 특성을 부각하였다. 설계자는 돌의 성질과 인공적인 창작을 동등하게 중요한 위치에 두었으며 돌을 따라 조형하는 조각 기법을 운용하여 자연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인공적 흔적을 남겨 ‘천인합일’<sup>54)</sup> 사상의 구현을 유지하였다. 광거병 묘의 석조는 묘의 조각으로 그것이 운용하는 ‘천인합일’의 조각 이념과 서한 시기의 사회 사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서한의 묘장 규격은 매우 광대했으며 초기의 횡혈묘는 횡혈다실묘로 발전하였고 묘실의 형태는 묘주의 생전의 거주 환경과 점점 근접해져 심지어 화장실의 배치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서림(賀西林) 등이 지은 <중국 묘실 벽화사: 영생지유(永生之維)>에 서는 서한 사람들의 생사에 관한 사상 관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는데 그

---

54) 조원일, 『장자(莊子)의 천인합일(天人合一)사상 연구』, 동양문화연구 30, 2019, pp. 95-119. 장자는 인간은 자아실현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자신에게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부단히 생명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되어 그 생명의 총체성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총체성은 인간이 천지 사이에서 및 천지와와의 상호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즉 생명의 총체성은 곧 천인합일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천인합일의 경지는 진인의 경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자연과 환경의 상호관계 아래서 표현되어지는 진·선·미라고 하는 세 측면의 조화와 통일의 경지 역시 천인합일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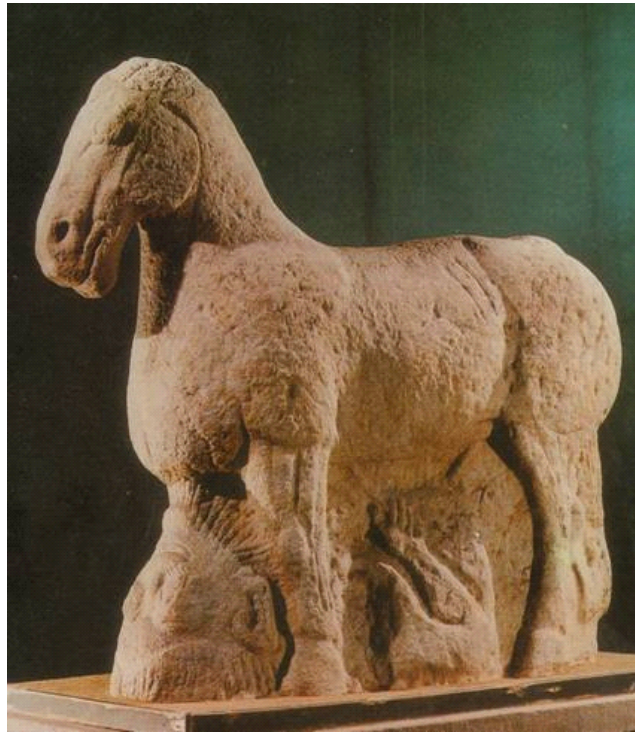
들은 죽음을 영원한 삶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상에서 영원은 곽거병 묘 석조의 중요한 정신적 특징이다.

곽거병 묘의 석조에서는 석조의 질감, 형태에서든 아니면 묘사된 생활의 장면에서든 모두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술가는 돌의 정교하고 세밀한 조각을 통해 대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 및 원시, 자연 상태에 대한 열정을 나타내었다. 서 있는 말, 돌 호랑이, 여러 생활 장면은 모두 입체적인 형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간에 표현하였다. 관객은 석조의 형상, 질감, 색채에서 예술가의 창작 의도를 느낄 수 있다. 곽거병 묘의 석조에서 창작자가 직관적이고 생동감 있게 곽거병의 사적과 한 대의 생활상을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묘 앞의 석마(石馬)와 석호(石虎)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하며 준마는 머리를 쳐들고 울고 있다. 호랑이는 눈빛이 이글거리고 생동감 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강렬한 시각적 자극을 준다. 묘의 양쪽 석각 부조에는 사냥, 경작, 음식을 먹는 장면, 음악, 무용 등의 여러 생활 속 장면이 표현돼 있어 관객이 한 대 사회의 생활면모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원형의 구현은 한나라 석조 예술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곽거병 묘의 석조 예술에서 여러 가지 형상은 어떠한 원형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원형은 한 대의 역사, 신화, 문화 등에서 기원한 것일 수 있으며 예술가는 자신의 상상과 혁신을 통해 이러한 원형에 새로운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였다.



참고도판 26) 누워있는 말, 동양, 150×240cm,  
석조, BC 117년



참고도판27) 마담홍노(馬踏匈奴), 동양, 168×190cm, 석조, BC 117년

곽거병 묘의 석조 예술은 신화 기호, 원시성, 직관성과 원형과 기호의 운용으로, 한나라 석조 예술의 독특한 매력을 표현하였다. 또한 예술가의 개인적 양식과 혁신 정신을 구현하였으며 한대사회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예술 형식은 관객에게 직접적인 감각의 연결을 확립하게 하여 관객이 직관적으로 예술가의 창작 의도를 느끼게 하며 중국 한나라 문화의 특징을 한 층 더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한다.

중국 한나라 곽거병의 묘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묘의 석각, 공공 건축의 석조 장식 등 다른 한 큰 석조 작품에 모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며 이러한 기초에서 자체적인 독특한 예술 양식과 가치를 나타낸다. 한 대의 석각 중 많은 작품에서 농경, 사냥, 전쟁, 무용 등의 장면에서 당시의 사회생활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작품은 직관적인 형상을 통해 한 대 사람들의 생활상과 사회 면모를 생동감 있게 반영하여 직관적으로 한 대사회의 번영과 활력을 느낄 수 있다.

한나라 석각 예술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화상석(畫像石)이다. 화상석은 일반적으로 돌 위에 여러 가지 생활상이나 신화 이야기를 새겨 당시의 사회생활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형상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중 신화 기호와 원형의 사용은 화상석 예술의 선명한 특색이기도 하다.

첫째, 우리는 여러 가지 신화 기호가 한나라 화상석에 광범위하게 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 봉황, 사자 등 동물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즉 한 부류는 코뿔소, 부엉이, 토끼, 개미, 쥐, 거북이, 물고기, 새, 코끼리, 호랑이, 개구리, 소, 물소, 양, 곰, 돼지 등 현실 세계에 진짜 존재하는 동물이고 다른 한 부류는 도철(饕餮), 기(夔), 비유(肥遺), 용규(龍虯) 등과 같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문헌이나 신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동물<sup>55)</sup>로 묘비나 석각의 장식에 자주 사용되는 동물이다. 용은 중국 문화에서 황권과

---

55) 장광직, 이철 역. 「신화미술제사」, 동문선, 1998, p. 100.

길상을 대표하며, 봉황은 아름다움과 조화, 사자는 위엄과 용맹, 권위를 상징한다. 이들과 앞서 제기한 아프리카 조각에 등장하는 형상들과의 유사점은 이런 신화 동물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과 자연에 대한 미술가들의 이해와 경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화상석에서 일부 원형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 천신, 신성한 동물, 악기, 복식 등의 요소는 모두 역사와 신화의 원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창작자는 이러한 원형을 절묘하게 운용하여 신화적 색채와 상징적 의미로 넘치는 예술 작품을 창조하였다. 화상석은 한나라 석조 예술의 중요한 매개, 그중 수많은 신화 기호와 원형을 융합하여 각 화상석이 하나의 역사, 신화와 생활을 이야기하는 무대가 되게 하였다. 예술가는 이러한 요소의 운용과 혁신을 통해 생동적이고 구상적인 화면의 묘사를 통해, 그들의 예술적 재능을 구현하고 한나라 사회의 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하였다.

화상석에서 여와보천(女媧補天), 정위진해(精衛填海) 등 여러 가지 신화 이야기를 묘사한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장면은 사람들의 신화에 대한 열정과 숭배를 구현하였으며 창작자의 신화 이야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독특한 해석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신화 이야기를 통해 중국 한나라 사람들의 생활 이념과 문화 신앙을 알 수 있다.

한나라 화상석 속의 신화 기호와 원형은 예술가의 생활과 자연에 대한 이해이자,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억이다. 이러한 화상석은 시각적 역사서로 한대의 생활, 신앙과 가치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화상석의 연구와 감상을 통해 한나라 석조 예술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으며 중국 한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나라 석조 예술의 원시성은 재료의 선택과 처리에서도 구현된다. 예술가가 사용한 돌은 일반적으로 원시적 질감과 색채를 보존하여, 과도한 조각을 가하지 않고 석재 자체의 형상에 따라 간단한 장식을 하였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중국 한나라 석각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적은 것이 많은 것”이라는 창작 이념은 석조에 원시와 질박한 요소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원시적이고 질박한 미감은 중국 한나라 석조 예술의 독특한 매력을 형성하였다.

## 2. 조각적 이미지의 혼성

### 1) <산해경>의 이미지-서술 방식

<산해경>은 중국 고대의 저명한 지리지 및 신화집으로 중국 신화의 보고이자 괴수 백과전서로 유명하다. 산해경의 형성 시기는 매우 이르다. 전국 시기에 시작되어 한나라 시기 책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사이에 수백 년의 전승과 변천을 거쳤다. 전서는 산경, 해외경, 해내경 등으로 나뉘며 자연 지리, 물산, 풍속 습속, 신화 전설 등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신화 전설과 괴수의 형상으로 유명하며 중국 고대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참고도판 28) 청나라 진창서업당장장 소장판의 오임신이 주석한 '산해경광주' (18권, 그림 5권)에 그려진 신수

산해경은 전국 시기 호기지사(好奇之士)들이 목천자전(穆天子傳)의 기록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산해경은 고금어괴지조(古今語怪之祖)라고 칭하여 종래의 지리서, 박물지적(博物志的) 해석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이는 전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해경은 고대 소설의 최고 작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하다.<sup>56)</sup>

<산해경> 속의 괴수 형상은 풍부하고 다양하며 형태가 기괴하고 상상력으로 넘치며 원시성과 신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상은 한 편으로는 미지 세계에 대한 고대인의 호기심과 상상을 반영하였고 다른 한 편으로는 풍부한 상징과 은유를 담고 있다. 조각의 발생에 중요한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 체현된다.

<산해경> 속의 괴수 형상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의미 또는 힘을 상징하며 강렬한 기호성을 가진다. ‘비휴’는 고대에 귀신을 물리친다고 여겨지던 신화 속 동물로, 일반적으로 고대 건축의 문 앞 또는 묘비에 새겼으며 벽사와 흉을 피하고 평안을 상징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은 본인의 창작 이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괴수 형상은 생동적이고 원시적이며 생명력이 넘친다. 이러한 괴수는 일반적으로 인간과 동물이 결합된 특징을 가지며 원시 생물의 야성과 인간의 정서와 지혜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원시성의 표현 방식은 조각 예술의 발전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미술가들이 직접적으로 자아를 표현하고 자연으로 회귀하게 함으로써 조각 예술의 표현 범위를 개척하도록 고취한다.

<산해경> 속의 괴수 형상은 강렬한 시각적 자극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특이한 형상과 선명한 색으로 깊은 인상을 준다. 이러한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예술 표현 방식은 조각 예술에 중요한 시사점을 갖게 하며 미술가들로

---

56) 서경호, 「산해경 소고」, 『중국문학』, vol 6, 1992, p. 159.

하여금 가장 직관적이고 생동적인 형상으로 생활의 본질을 포착하고 표현하도록 고취한다. 이러한 직관성의 표현 방식은 조각 작품에 강렬한 시각적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관객이 직관적으로 작품의 예술적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산해경> 속의 괴수 형상은 단순한 자연 생물의 모방이 아니라 풍부한 문화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기린(麒麟)’은 <산해경>에서 몸은 사슴과 같고 꼬리는 소와 같으며 비늘이 있고 선량하고 인자한 동물로, 길상과 조화의 상징으로 묘사된다. ‘봉황’은 ‘백조의 왕’으로 여겨지며 황권의 권위와 사회의 질서를 상징한다. 이러한 형상은 조각 예술에서 광범위하게 운용되며 감상성을 가진다. 심오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조각 예술에 미술가들의 관념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관객들에게 심층적 문화와 철학적 사고를 주입한다.

이러한 괴수 형상은 일반적으로 야성을 가진 원시 기호의 도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결합으로 인간의 지혜와 정서, 동물의 힘과 야성이 하나로 융합되어 완전히 새로우면서도 평범치 않은 생명의 형태를 창조하였다. 이러한 원시성의 표현 방식은 조각 예술에 강렬한 생명력을 부여하였다. 직접적이고 힘 있는 방식으로 생활의 본질을 표현하였고 인간의 기본적 정서와 생명의 열렬한 열정을 구현하였다. 또한 이러한 원시성 역시 예술가의 자연과 인간의 정서에 보다 깊은 체험과 이해를 고취하여 그들의 창작이 보다 깊이와 내용을 갖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산해경>의 괴수 형상은 형상이 기이하고 색채가 선명하여 시각적 자극이 강하다. 그들의 형상은 직접적이고 명료하여 해석이 필요하다. 즉, 직접적으로 관객의 지각과 정서적 반응을 야기한다. 이러한 직관성의 표현 방식은 조각 예술에 강렬한 시각적 자극을 갖게 하여 관객의 감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상상과 연상을 야기한다. 또한 이러한 직관성

은 조각 예술에 보다 큰 표현의 자유를 부여하여 예술가가 보다 직접적이고 개성적인 방식으로 자아를 표현하고 조각 예술의 창작 공간을 개척하도록 고취한다.

<산해경> 속의 괴수 형상의 조각 예술에 대한 중요한 예술적 가치를 알 수 있다. 그것이 가진 기호성, 원시성, 직관적 특징은 조각 예술의 표현 기법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활과 자연에 대한 각기 다른 차원의 인식 방식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조각가에게 소중한 창작 영감을 제공하며 조각 예술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한다.

현대 예술가들은 <산해경> 속의 괴수 형상에서 상징과 은유를 통해 심층적인 문화와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 지, 원시성의 표현 방식으로 본질과 인간의 기본 정서를 어떻게 표현할 지, 직관적인 예술방식으로 어떻게 강렬한 시각적 자극을 창조할 지를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우리의 창작 사고를 개척하도록 도와주고 창작에도 보다 심층적인 사고와 이해를 제공해준다.

<산해경>의 신화 이야기는 동방 고대 문화와 신앙을 나타내며 풍부한 상징과 이미지를 제공하였는데 이들은 용이 설명한 집단 무의식의 공통 요소와 대응된다. <산해경>에는 상징적인 동물, 신령, 지리적 특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집단 무의식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용은 다양한 문화에서 공통적인 심리 구조와 신화 전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산해경>의 신화 이야기는 바로 문화 사이의 집단 무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해경> 이야기 속의 몽환적인 서술과 이미지는 용이 말한 “꿈이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만나는 장소”라는 관점과 일치하다. 따라서 용의 집단 무의식 이론과 <산해경> 신화 이야기의 연결은 인간 정신 깊은 곳의 공통 원형, 상징, 그리고 이야기 구조를 드러내며 이들은 특정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일 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의 심리와 정신적 경

힘을 반영한 것이다.

본인의 예술 작품은 <산해경>의 신비한 세계에 바탕을 두고 상상으로 가득한 괴수를 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작품에서 원시성, 직관성과 기호적 요소를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차, 상호 영향을 주며 함께 본인 작품 속의 예술적 분위기와 철학적 내용을 구축하고 있다.



작품도판 1) 엔칭, <추오>, 84×60cm 디지털 조각 2022

본인의 창작 이념 중 원시성과 직관성은 특수한 의미를 부여받았는데 이는 정서와 사유의 직접적인 표현 방식으로 여겨진다. 본인은 원시성의 표현을 통해 인간성의 본질을 해석하고 인류의 가장 원시적인 정서와 생명력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원시성은 작품 속의 형식과 기교의 처리에도 반영되며 본인은 간결하고 조악한 예술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번잡하지 않은 디테일과 기교로 강렬한 시각적 자극을 형성하였다. 직관성은 관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작품에 직접적인 지각과 정서적 반응을 야기

하고 복잡한 해석이나 이론이 없이 작품의 내재된 역량과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기호의 응용은 본인의 작품에 보다 깊은 내용을 부여하였다. 우화와 상징의 방식을 통해 생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인류의 이해와 상징을 탐색하고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산해경> 속의 괴수는 비록 허구의 생물이지만 일반적으로 인류의 공포, 욕망, 꿈과 희망에 의탁하여 인간성의 상징이 되었다. 본인의 작품 <추오>[작품도판 1]는 고대 중국 신화 전설 속에서 어진 동물이다. 임씨국(林氏國)의 매우 진귀하고 신령스러운 짐승으로, 덩치가 호랑이와 비슷하다. 다섯 색 찬란한 무늬가 있으며 꼬리는 몸보다 길다. 흰 털에 검은 무늬의 호랑이와 비슷하다. 살아있는 짐승을 먹지 않으며 그 위에 올라타면 하루에 천 리를 달린다. 추오를 원형으로 창작한 작품에서 구름도안으로 ‘인의(仁義)’와 ‘하루에 천 리를 달린다’는 키워드에 대응하였다. 이런 구름 무늬는 단순한 장식 요소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파동 형태와 흐름이 조우의 역동적으로 달리는 능력을 상징하며 하늘의 광대함과 바람의 자유를 은유한다. 이는 시각적으로 고대 청동기의 운뢰문(雲雷紋)을 모방한 것 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조우가 상징하는 고귀한 정신과 도덕적 품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기호의 응용은 본인의 작품으로 하여금 독해와 우화의 깊이를 가지게 하였으며 관객들에게 보다 많은 사고와 해석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원시성을 통해 본인은 작품 속에 진실, 본능과 순수를 표현하고자 시도하였다. 창작 과정에서는 기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괴수 형상 본성의 파악과 구현에 치중하였다. 이로써 생활과 자연에 대한 지각과 이해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원시성을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해 본인은 거친 질감과 자연적인 색채로 괴수의 야성, 힘과 생명의 활력을 표현하였다. 관객이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이 전달하는 야성, 신비와 정서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

기를 바란다.

직관성은 작품 창작의 핵심적인 관점 중 하나이다. 이는 작품의 시각적 표현력에 구현될 뿐만 아니라 작품과 관객의 교류 방식에도 구현된다. <산해경> 시리즈 작품은 간결하고 생동적인 예술 언어로 괴수의 형상과 역동감을 표현하여 강렬한 시각적 자극과 예술적 표현력을 담고 있다. 관객이 작품을 감상할 때 과다한 해석과 사고 없이 즉시 이해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조각의 형상, 형태와 디테일을 통해 본인은 강렬한 시각적 효과와 정서적 자극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관객이 괴수의 힘, 공포 또는 매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작품에 강렬한 공감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직관의 표현 방식은 작품의 감상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객의 정서적 반응과 사고를 효과적으로 유발하여, 관객과 작품의 정서적 연관성을 더할 수 있다. 작품 <용>[작품도판 2]은 어린 시절 ‘용’이라는 토템에 대한 최초의 인상에서 기원한 것인데 이는 타인의 인식 경험이 자신에 대한 후천적인 영향과는 관계없이 단지 자신의 인식과 관련된다. 본인의 작품 <용>은 형식 상 추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기하학적인 선으로 용의 동적 특성을 표현하고 이 신화 동물의 심오함과 힘을 암시했다. 또한 금속 재료를 선택하여 그 광택과 반사 특성을 이용하여 용이 다양한 문화 심리에서의 존귀한 상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현대 미학의 차원을 더하였다. ‘용’이라는 상징의 현대적 재구를 통해 작품은 전통 이미지와 현대적 인식 사이의 경계를 깨뜨리고 관객들이 개인의 직관과 내면의 상상력에 따라 작품을 해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험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창작 개념은 작품과 관객 사이의 상호 이해의 장벽을 효과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데 이는 피카소가 말한 바와 같다.

어린 아이였을 때, 나는 라파엘로처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었지만 화가의 길은 어떻게 하면 어릴 때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나의 평생 동안의 미술 목표는 바로 어린 시절 그림 그릴 때의 그런 단순함이다.<sup>57)</sup>



작품도판 2) 엔칭, 〈용(龍)〉, 84×60cm 디지털 조각, 2022

---

57) 布罗莎伊. 杨元良译, 『与毕加索的对话』, 湖南文艺出版社, 2000, p.299.



작품도판 3) 엔청,〈용〉, 금속, 3d 프린팅, 도색 50×70×15cm, 2022

본 연구의 미술 창작에서 본인은 직관과 원시의 예술 표현 전략을 취하였으나 이는 해당 작품에 학술적 깊이와 문화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기호의 정확한 운용을 통해 본 연구는 인류와 자연, 우주 간의 심층적인 연계를 탐색하여 드러내고 생활과 인간성의 핵심적인 속성을 밝히는데 뜻을 두고 있다. 상징과 은유라는 전략을 빌려 <산해경> 속의 신화 생물을 인간성, 생활과 자연의 대표로 중역(重譯)하여 생물, 자연과 우주의 철학적 탐구를 한 단계 더 심화한다. 이러한 기호학적 응용은 작품에 다양한 문화적 절차와 광범위한 사고적 차원을 부여하고 학술계와 대중

에게 보다 심도 있는 해석의 시각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예술 창작은 <산해경> 속의 신화 생물을 핵심으로, 원시성, 직관성과 기호학의 요소를 융합하여 관객을 위한 심층적이고 직접성이 병존하는 예술 체험을 확립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을 감상할 때 관객들이 생활, 자연과 인간성의 본질에 대해 재고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 단계 더 더 나아가 본인은 해당 작품이 일종의 학술과 정서의 교량이 되어, 관객과 깊이 교류하고 생명, 자연과 우주에 대해 심층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작품에서 관객들은 독특한 신화 생물 형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들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거나 다부진 체격 또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작품 <험상(狲)>[작품도판 4]은 한문 ‘쟁(狲)’으로 공포, 흉악의 의미를 나타낸다.<sup>58)</sup> 그렇다면 뒤돌아보는 모습과 손에 닿을 듯한 꼬리의 모습은 ‘험상(狲)’이 대표하는 전통적 상징 의미와 직접 대응될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형식으로 공포와 흉악한 시각적 느낌을 강화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직관성을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풍부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본인의 <산해경> 속 신화 세계에 대한 학술적 해석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내재된 공포에 대한 욕망과 기대의 심층적 표현이다. 인류의 공포는 흉악과 추악에서 비롯된 것보다 미지와 신비에서 비롯된 것이 더 많다. 이러한 형상은 시각적 장식일 뿐만 아니라 정서와 철학적 의미로 넘치는 기호로 생활과 인간성에 대한 자신의 심층적인 이해를 다각적으로 전달한다.

---

58) <https://www.zdic.net/hans/%E7%8B%B0> (최종 검색 날짜:2023.9.8)



작품도판 4) 엔청, 〈힘상(狲)〉, 금속, 3d 프린팅, 도색 60×53×17cm, 2022

본 연구에서 취한 예술 표현의 전략은 원시성과 직관성에 대한 본인의 학술적 중시를 투영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호학에 대한 이해와 응용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작품이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여 직접적으로 관객의 정서와 인식 구조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그 내재적 공감과 사고를 유발하기를 기대한다. 이외에도 이러한 창작 방법 또한 본인의 예술의 본질에 대한 탐색으로, 정서와 사상 전달 방법의 잠재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현대 예술가에게 원시성, 직관성 및 기호학의 요소는 심층적인 탐구와 응용의 가치가 있다. 이러한 요소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고 인간성, 생활과 자연을 깊이 탐색하게 하며, 예술 창작을 위한 새로운 영역을 열어준다. 이러한 요소의 연구와 실천을 통해 전통적 예술 범주를 초월하여 보다 독특하고 심층적인 예술 형상을 발굴하고 창조할 수 있다.

본인의 예술 실천에서 원시성, 직관성과 기호학의 요소는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는 작품의 양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작품에 심오한 문화적 내용과 시사적 의상(意象)을 주입한다. 원시성은 본 연구에 하나의 방법을 제공하고 인간성의 핵심과 진실을 포착하며 표현하게 한다. 직관성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여 관객과 정서와 사상의 연결을 수립하게 하였다. 한편 기호학 요소는 작품에 보다 풍부한 문화와 철학적 깊이를 창조하였다. 모든 신화 생물의 형상은 고립된 것이 아니며 <산해경> 신화 세계의 학술적 해석 및 인류 정서와 사상적 상징이다. 이러한 상징과 은유는 작품에 보다 깊은 학술적 의미를 부여하였고 관객의 심층적인 사고와 깨달음을 준다.



작품도판 5) 엔청, <날개>, 한백옥, 40×23×5 cm, 202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의 표면적인 응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본인은 이러한 요소에서 보다 심층적인 주제와 철학적 사고를 탐색하고 발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본인은 원시성, 직관성과 기호학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응용하여 인류의 내면세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관객의 작품 감상 과정 중 본인의 창작 철학을 깨닫고 인간성과 생활의 참뜻을 탐색하게 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작품에서 채택한 <산해경> 속의 신화 생물 형상은 고대 중국

문화에 대한 존중과 경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나타낸다. 이러한 신화 생물의 형상은 고대 문화 속의 상상과 신화이자 현대인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어려움을 투영하였다. 본인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관객의 성찰을 유도하고,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내재된 욕망과 공포에 속박되어 진정한 자아와 본질을 상실하였는지를 성찰하고자 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원시성, 직관성과 기호학의 요소의 통합을 통해, 본 연구는 독특한 예술표현 방식을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과 인간성의 철학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이러한 예술 실천 활동을 통해 관객들은 예술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으며 자아와 세계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다.

### ① 인간-동물 결합형

<산해경>은 중국 문화에서 중요한 고대 서적으로 신화, 전설, 지리, 민속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종합돼 있으며 기묘하고 다양한 고대의 세계를 보여준다. <산해경>에서는 인면마신, 호면인신 등과 같은 동시에 인류와 동물의 특징을 겸비한 많은 괴수들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형상의 창조와 표현은 풍부한 시각적 상상력과 상징성의 의미를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각 창작에 심오한 시사와 영향을 주었다.

[작품도판 6]의 두드러진 얼굴 형상은 동양 전통의 신수(神獸) 무늬를 참고한 것이다. 이 무늬는 고대 문화에서 탐욕과 삼킴을 상징하며 신화 인물 형상의 반역 및 투쟁 정신과 내적 연결을 가지고 있다. 현대 조각 기법을 통한 재해석으로 신수 무늬는 이 작품에서 단순한 문화의 메아리가 아닌 고대 신화의 생명력과 강인한 생존 의지에 대한 현대적 표현이다.

작품의 양 측은 음각과 양각의 대조를 통해 시각적인 생사 대화를 형성하

였는데 이는 생과 사의 공존을 나타내며 만물이 상생상극하는 자연 법칙과 동양 철학의 음양 평형 개념을 상징하고 있다. 머리가 잘린 채로도 용감하게 싸우는 신화적 형상<sup>59)</sup> 형천은 이 작품에서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주제로 부각되었다. 조각에 융합된 음양 대비는 형천 신화 속에서 운명에 맞서고 생사의 경계에서 고군분투하는 강렬한 감정을 적절히 보여주었다. 작품 <형천>은 고대 신화에 대한 미술가의 현대적 해석으로 조각의 형태를 통해 신화적 인물의 서사를 현대 예술 언어의 맥락 속에 통합시켜 관객들로 하여금 생명의 힘, 대항하는 용기 및 생사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체험하도록 하였으며 강력한 문화적, 감정적 교류의 매체로 되었다.

---

59) 강윤희. 「한사오궁소설에 나타난 신화의 현재적 의미 고찰-반고, 형천 신화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2019, pp. 135-158.



작품도판 6) <엔칭, 형친 - 신수4>, 모래, 80×45×80 cm, 2017

인간-동물 결합형은 표면적 형태의 결합만이 아니다. 이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연원 관계를 심층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인류와 자연, 동물과 신에 대한 다중적인 감각을 투영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적 표현 형식은 중국 선진(先秦) 신화에서 표현의 극치를 달성하였다. 신에는 복희, 여와, 황제가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반인반수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원시민족의 자아의식에 대한 탐색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세계에 대한 통찰을 반영하였다.

이 뒤에는 초기 인류의 우주관, 생명과 자연에 대한 독특한 철학이 숨겨져 있다. 날고 달리거나 힘이 센 이런 특징은 인류에게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은 위대한 상징이 되었으며 초기 인간들은 이러한 특성을 자신의 신의 형상에 포함시키고 더 나아가 이를 미화하고 정제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대중에게 숭배되는 신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예를 들어, 뱀을 숭배하는 부족은 인간과 뱀을 한 몸으로 한 형상을 창조하였고, 소를 숭배하는 부족은 인간과 소의 결합에 편향된 형태를 표현할 것이다. 이러한 토템과 형상은 순수하며 직접적이고 힘이 넘친다.

선진<sup>60)</sup> 신화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형상에서 세상을 창조한 신과 다른 중요한 천신, 산신은 일반적으로 인간-동물 결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탐색을 구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신의 지체와 역량의 완벽한 결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형상은 겁을 주거나 놀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과 우주는 상호 연관되며 서로 갈라놓을 수 없다. 인간-동물 결합형은 선민의 생

---

60) 선진(先秦): 대략 기원 전 2100년-기원 전 221년.

명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나타내며 그들의 생명과 우주의 신비와 연결된 탐색이다.

인간-동물 결합형은 예술 창작에 보다 커다란 상상의 공간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융합은 생물 형태의 단순한 조합일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사고와 전환을 통해 새로운 형상과 의미를 발생한다. 이러한 심층적이고 창의적인 운용은 현실 세계에 대한 예술가의 인식과 표현에 도전하고 나아가 예술 실천 속에 현존하는 한계를 타파하여 혁신적 표현 기법을 시도할 수 있다. <산해경> 속의 인간-동물 결합형은 그 형태가 독특하고 변화가 다양하며 현실 생물의 형태의 한계를 초월하여 조각 창작에 광범위한 상상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유의 제고는 예술가에게 있어 전무후무한 도전이자 일종의 혁신의 기회가 된다. 이러한 형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혁신적인 전환은 예술가에게는 생명 본질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심층적 탐색이자 예술 표현에 대한 새로운 시도이다.

인간-동물 결합형은 강렬한 상징성과 은유를 가진다. <산해경>에서 이러한 형상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도덕, 가치 또는 철학 사상을 상징한다. 인류는 도덕, 규범, 질서 등을 은유한다. 알유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사납고 괴이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사람들에게 사악함과 미지의 공포를 은유하는 것처럼, 동물은 때로는 욕망, 야성, 직관 등 기호적 특징을 대표한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상징성과 은유성의 운용을 빌려 자신의 작품에 보다 심층적인 주제와 의념의 상징성과 은유를 표현하였으며 작품에 다중적인 해석과 이해를 야기하였다. 또한 작품에 깊이와 예술적 매력을 더할 수 있으며 예술가의 표현 과정에서 인간성과 생활의 내재적 본질을 보다 잘 다룰 수 있다. 본인의 작품 [작품도판 7]에서는 소녀의 몸에 새의 외형을 융합하여 중국 전통 신화 이야기 ‘정위전해(精衛填海)’<sup>61)</sup>를 창작 배경으로 하였다. 인류가 자연과

61) 중국 고대로부터 전하는 幻想의새. 여름을 지배하는 炎帝의 딸이 東海에 빠져 죽어 그 몸이 새로화했다고 하며 항상 西山의 木石을 물어다. 東海를 메우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대면하였을 때, 낭만주의 색채가 넘치는 항쟁정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탐구하였다. 이로써 산해경의 인간-동물 결합형이 물리적 형태의 융합일 뿐만 아니라 문화, 도덕, 심리 등 각종 요소의 교차이며 이는 예술가에게 풍부한 사고와 시사점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작품은 이러한 차원에서 산해경의 형상의 창조는 시각적 예술의 혁신일 뿐만 아니라 생명, 문화, 사회 등 여러 요소의 심층적인 사고와 혁신의 표현이라고 인식한다.



[작품도판 7] 옌청, 〈정위 - 신수1〉, 모래, 120×55×90cm, 2017

인간-동물 결합형은 강렬한 직관성과 감화력을 갖는다. <산해경>에서 이러한 형상은 일반적으로 생동감 있고 활발하게 표현된다. 또한 사실적이며

---

못했다고 함. 서경호, 「山海經에 나타난 神의 性格」, 『東亞文化』, 1981, pp. 83-111.

시각적 자극을 준다. 이러한 형상의 직관성은 의심할 여지없이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더 나아가 작품에 대한 사고와 이해를 유발한다. 이러한 직관성과 감화력은 조각 창작에서 극도의 가치를 지닌다. 예술가는 이러한 형상의 창조를 통해, 관객에게 시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작품에 대한 사고와 깨달음을 야기한다. 이러한 직관성과 감화력의 운용은 예술 표현의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자 관객에게 정서와 사유의 깊은 감동을 준다.

인간-동물 결합형은 또한 일종의 원시성으로 구현된다. <산해경>에서 이러한 형상은 원시적 야성과 역량으로 생명 본원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와 찬미를 담았다. 이는 작품의 생명력과 감화력을 제고하였으며 예술 창작의 본질과 핵심을 보다 강조하였다.

<산해경> 속 인간과 동물이 결합된 괴수 형상은 상상의 공간, 상징성, 직관성, 원시성의 차원에서 모두 예술 창작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며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것은 생물 형태의 전통적 인식을 타파하고 창작의 경계를 허물어 준다. 상징성과 은유로 작품에 풍부한 문화적 내용과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생동적인 묘사를 통해 감화력 있는 시각적 영향을 창조하고 그 원시적 생명력으로 생명의 본질과 매력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인간-동물 결합형의 독특한 형태와 내용은 미술 창작의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 이는 미술가들로 하여금 보다 개방적인 시야로 생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깊은 통찰력으로 생명의 다차원성을 밝히고 표현하도록 고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술가들은 더 새로운 표현 기교와 창작 기법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유와 시야를 개척할 수 있으며 생명과 세계의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형상은 관객에게 일종의 새로운 예술 체험과 감각의 방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작품의 감상과 해석을 통해 관객은 작품의 역량과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으며 작품이 포함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철학적

사고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체험과 지각은 관객의 정신 세계를 풍부하게 하고 그들의 예술적 소양과 인문적 소양을 높일 수 있다.

예술적 차원에서 분석하면 <산해경> 속 인간과 동물이 결합된 방식은 조각의 창작에 깊은 의미를 가진다. 이는 조각가에게 풍부한 창작 소재를 제공한다. 조각가의 작품에 영감을 불어넣고 예술의 시야를 넓히는 한편, 창작 기법을 다양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결합 방식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예술 체험을 하게 하여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보다 깊은 문화적 내용과 철학 사상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인간성, 생명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이러한 인간-동물 결합형의 출현은 현실주의의 표현 범위를 깨고 조각 예술의 발전을 보다 다원화하고 표현 형식을 풍부하게 하였다. 형상과 이야기의 혁신을 통해 예술가들은 이를 빌려 관객들에게 현실과 시공간을 초월한 예술 세계를 보여준다. 환상의 색채로 가득한 상상의 공간에 진입하게 하여 관객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예술을 감상하게 하고 추구하는 바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형상은 자연과 인류의 관계, 인간과 사회의 관계, 삶과 죽음과 같은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를 탐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는 인류가 직면한 영원한 문제로 <산해경> 속의 형상을 빌려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이러한 주제를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예술 작품에 심층적인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보다 심층적인 사고와 깨달음을 제공한다.

<산해경> 속의 이러한 형상은 조각 예술 표현의 창작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인간-동물 결합형의 형태의 복잡성과 다변성은 <산해경> 속의 인간-동물 결합형에서 조각 예술 실천에 대한 여러 방면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창작이념에서부터 주제의 표현, 형식의 혁신에서

다시 기술의 운용까지 이러한 인간과 동물이 결합된 형상은 조각의 창작에 무한한 가능성과 깊이를 더한다.

창작 이념에서 보면 이러한 형상은 독특하고 생명력이 가득한 시각을 제공하여 예술가들로 하여금 현실을 초월하게 하여 상식을 깨게 한다. 이를 통해 사유의 자유로운 발휘와 혁신의 시도를 실현하게 한다. 이러한 자유와 혁신의 정신은 예술 창작의 핵심 동력이자 예술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천이다.

주제의 표현에서 보면 이러한 형상은 상징과 은유의 방식으로 생명, 자연, 사회 등 심층적 주제와 의미를 밝힌다. 이러한 깊이와 넓이의 표현은 예술 작품에 보다 깊은 사상적 내용과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며 관객이 작품을 감상하는 한편 인생과 세계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한다.

형태의 혁신에서 보면 이러한 형상은 독특한 형태와 구조로, 전통적 예술 형식과 심미적 기준에 도전하면서 예술 형식의 다양화와 발전을 추진하였다. 다양화와 혁신적 추세는 예술의 표현 기법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예술 창작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산해경> 속의 인간과 동물이 결합된 방식은 조각의 창작에 시사점을 가진다. 풍부한 창작 소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작 시야를 열었다. 또한 조각 예술의 이념, 표현, 형식과 기술 등 각 방면에 긍정적인 역할을 야기하였다.

## ② 동물-동물 결합형

인간-동물 결합형과 비교할 시, 동물-동물 결합형은 예술 표현 방식, 예술 표현력, 형상의 상징성에서 독특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동물-동물 결합형’이라는 개념은 예술과 문화에서 유구하고 신비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인간-동물 결합형은 주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탐색하는 것이라면 동물-동

물 결합형은 자연 속 여러 생물 간의 관계와 융합 및 그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보완하는지에 집중한다.

첫째, 동물-동물 결합형의 출현은 상당 수준 자연계에 대한 인류의 호기심과 탐색을 반영한다. 용(뱀, 독수리, 사자 등 동물의 특징을 갖춤)이나 기린(일반적으로 사슴의 몸, 말의 발굽,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음)과 같은 두 종류의 확연히 다른 동물을 관찰할 때, 실제로 대자연의 다양한 특징과 정수를 결합하여 새로우면서도 강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생명의 형태를 창조하게 된다.

동물-동물 결합형 또한 균형에 대한 추구를 반영한다. 대자연 속에서 모든 생물은 독특한 위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의존하면서 조화로운 생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각 동물의 특징을 결합하여 사실 하나의 완벽한 균형을 모색한다. 이러한 형식을 통해 자연의 조화와 통일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인의 작품 <양면>[작품도판 8]은 전통 조각 속에서 자주 출현하는 음각 및 양각의 기법을 응용하여 이러한 대립 및 통일을 통해 동양 ‘음양상생(陰陽相生)’의 철학적 관점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62)

이러한 형식의 예술 또한 힘과 신성함의 추구를 구현하였다. 여러 고대 문화 속 여러 종류의 동물 특성이 결합된 신성한 동물은 일반적으로 가장 신성하고 강한 상징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여러 동물의 장점을 모아 어떠한 의미에서는 대자연의 정수, 신령의 화신으로 볼 수 있다. 동물-동물 결합형은 문화와 예술에서 상징적 의미로, 자연계에 대한 인류의 존중이자, 조화에 대한 추구 및 힘과 존귀함에 대한 동경이다. 이러한 형식은 동물의 특성에 대한 단순한 조합일 뿐만 아니라 생명, 자연과 우주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한 것이다.

---

62) 사송령, 음양오행학설사도론, 산둥: 문예출판사, 1989, p. 16. 설문도자(說文解字)에 의하면 陰 陽의 원형은 隞과 易이다. 隞은 해가 구름에 가려 흐려진 어두움을 상형한 글자이고, 易은 해가 높이 떠서 사방을 밝게 비추는 것을 상형한 글자다.



작품도판 8) 엔칭, 〈양면(兩面)〉, 청석, 40×35×10 cm, 2023

예술의 표현 방식에서 볼 때, 이러한 동물-동물 결합형은 상식을 초월하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두 종류의 보기에는 결합할 수 없을 것 같은 동물의 특성을 함께 융합하여, 일종의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였다. 이는 조각의 창작 난도를 높였지만 본인의 형상에 대한 이해와 통제 정도를 높였다.

동물-동물 결합형에서 괴수 형상의 상징성은 특정 주제를 표현할 때, 보다 강한 시각적 자극을 갖게 된다. <산해경>에서 여러 동물과 동물이 결합된 괴물 형상은 자체적인 독특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초(英招)’의 특징은 말의 몸에 호랑이의 무늬를 가지고 있으며 책에서는 천제를 대신하여 정원의 신을 감시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말과 호랑이의 결합은 ‘영초’라는 동물이 말의 온순함과 호랑이의 흉맹함을 겸비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이러한 상징성은 조각상이 시각적으로 강렬한 자극을 가지며 특정한 주제를 전달할 때 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한다.

동물과 동물이 결합된 괴물 형상은 독특한 형태와 풍부한 상징성으로 조각 창작에서 정서적 표현에 보다 직접적이고 생동감을 준다. 이러한 형상은 ‘시평(兕觥)’, ‘도울(櫛杓)’<sup>63)</sup> 등 <산해경> 속의 여러 종류의 동물의 특징이 결합된 신기한 생물로 묘사되며 괴이한 외형과 다양한 상징성은 예술가에게 직관적이고 자극을 주는 시각적 요소를 제공한다. 이는 작품 속에서 강렬하고 깊은 정서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러한 괴물 형상의 독특성과 다양성은 창작에 무한한 상상의 공간을 제공하며 예술가들에게 작품에 자신의 창작력과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이상의 분석으로 볼 때, 예술 표현의 방식이든 예술 표현력, 상징성과 정서 표현 등의 방면, 독특한 형태에서든 조각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다양하게 하여 작품의 예술 표현력을 높이고 보다 광범위한 창작 공간과 심층적인 창작 이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산해경> 속의 동물과 동물이 결합된 괴수 형상은 단순한 예술 형상이 아니며 고대인의 자연과 생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독특한 견해를 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조각 창작 속에서 이러한 형상을 운용할 때, 원래의 문화적 배경과 상징적 의미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유지해야 작품의 주제를 보다 잘 전달하고 자신의 예술 이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형상과 현대적 요소를 서로 결합하여 현대적 감각을 가진 예술 작품을 창조할 수 있으며 이로써 작품의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창신성을 더할 수 있다. 이러한 괴수 형상은 예술 창작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들의 형상 자체를 훨씬 초월하여 일종의 생명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예술 언어를 제공한다. 이로써 예술가에게 조각에서 보다 풍부하고 심층적인 예술 형상을 창조하게 하여 작품의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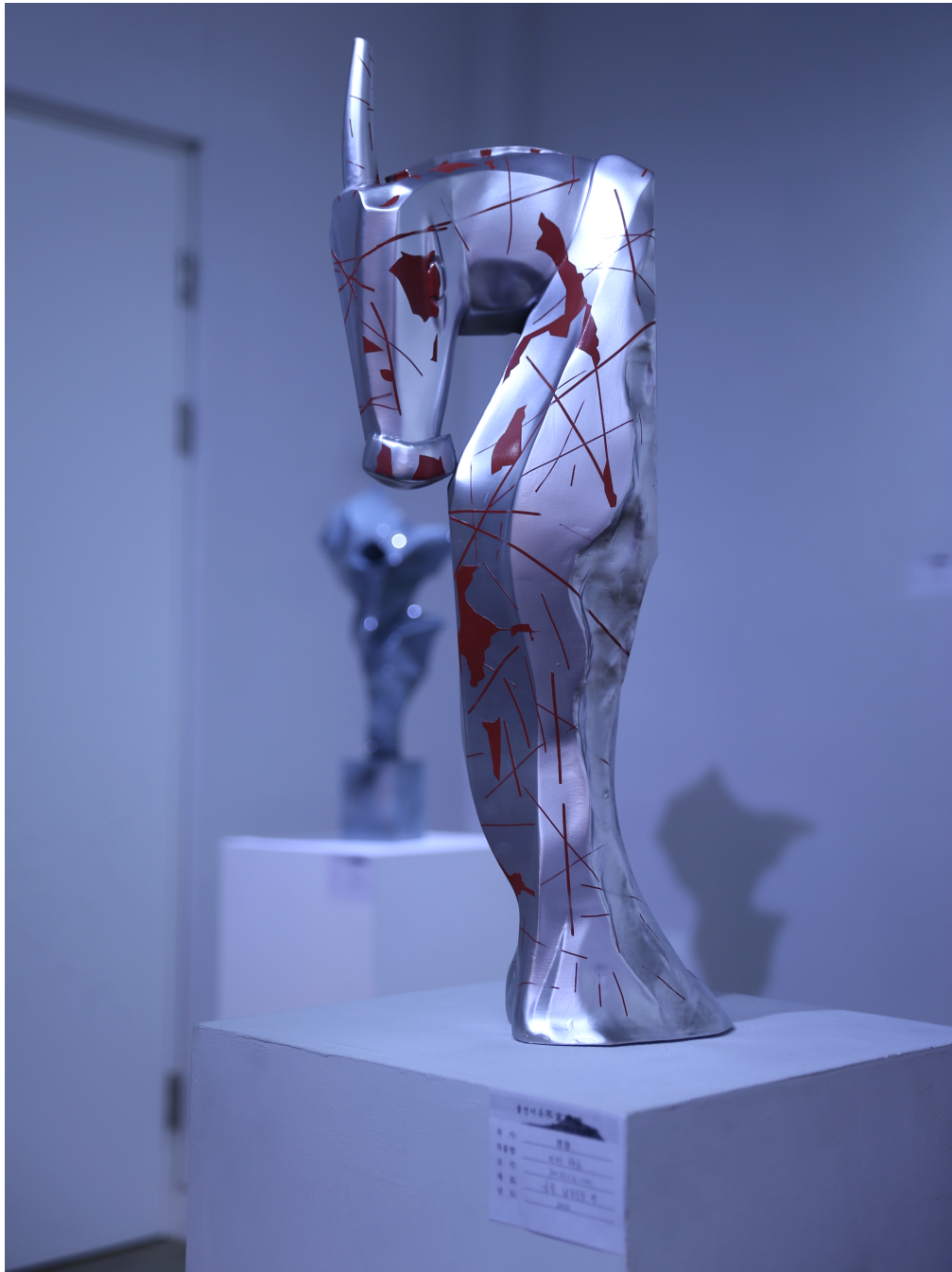
---

63) 서경호, 「山海經에 나타난 神의 性格」, 『東亞文化』, 1981, pp. 83-111.

와 정서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한다.

<산해경> 속 동물과 동물이 결합된 괴물 형상은 조각의 창작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회화, 문학,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여러 예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그들의 존재는 현실의 속박을 깨고 현실을 초월하여 환상과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또한 다양성과 변이성은 생명의 끝없는 가능성을 보여 주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을 일깨워준다. 그러한 상징성과 은유성은 언어로 묘사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서와 심오한 사고를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산해경> 속의 동물과 동물이 결합된 괴수 형상은 조각의 창작에 심오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의 창작 과정에서 이러한 형상을 충분히 차용하고 활용하여 내재된 예술적 가치를 발굴하여 작품에 더 많은 상상력과 생명력을 주입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형상 배후의 문화적 내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시각으로 <산해경>이라는 위대한 고대 신화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면서 예술 창작을 보다 풍부하고 심오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작품도판 9) 엔청, <비마(非馬)-이것은 그 말이 아니다>, 금속,  
3d 프린팅, 도색, 70 × 23 × 16 cm, 2022

## 2) 기호와 물질의 결합

조각 예술의 탐색에 있어 괴수 기호와 태호석의 결합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다. 또한 독특한 혁신성과 풍부한 의미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합은 형식적인 혁신성을 나타냈으며 상징적 의미, 문화적 가치와 심미와 혁신의 면에서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각의 창작에서 괴수 기호와 물질적 결합은 예술 언어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괴수는 특수한 기호로서, 풍부한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문화적 기억과 정서적 공감을 담고 있다. 물질은 예술 창작의 매개로서, 작품의 형태와 질감을 결정지으며 작품의 정서와 주제를 담고 있다.

각각의 괴수 형상은 서로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힘, 공포, 신비, 반역 등 여러 가지 정서와 주제를 상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선택과 괴수의 기호를 통해 예술가는 자신의 관념과 정서를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작품에 보다 심층적인 내용과 강한 표현력을 부여한다.

괴수의 기호와 물질의 결합은 자재의 선택과 운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로써 작품의 물질감과 시각적 자극의 역할을 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친 돌과 녹슨 철 조각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괴수 형상에 원시성과 야성을 더할 수 있다. 매끄러운 대리석, 투명한 유리 등을 사용하여 괴수 형상에 신비함과 고귀함을 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물질의 응용은 작품의 시각적 자극을 더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정서적 표현력과 예술적 감화력을 더한다.

태호석이라는 독특한 석재는 자연적인 형태와 무늬로 알려져 있다. 모든 태호석은 자연의 산물로서, 곡선, 모서리와 무늬 모두 자연계의 독특한 흔적이다. 태호석을 조각의 재료로 선택하는 것은, 사실 자연과의 대화를 의미하며 자연의 매력을 포착하고자 한 것이다. 괴수 기호는 유구하고 다양한 상징 기호로서, 인류의 미지와 상상에 대한 탐구를 대표한다. 예술가가 괴수를 선택하여 조각의 주제로 삼은 것은 사실 인류의 내면세계를 탐구하고 인류

의 욕망, 공포와 꿈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결합하여 새로운 예술 언어의 창조를 시도하는 것은 자연의 매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류의 정서도 포함한다. 이러한 결합은 작품에 독특한 조형적 미감을 표현하며 사실적이고 유기적인 질감을 부여한다.

괴수 기호와 태호석의 결합은 조각의 창작에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괴수는 고대의 상징으로 인류의 미지에 대한 공포와 자연의 힘에 대한 숭배를 상징한다. 태호석은 자연의 산물로 대자연의 힘과 지혜를 상징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로 결합될 때, 이는 사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탐구이다. 작품 속의 괴수 형상은 인류의 욕망, 공포 또는 충돌의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괴수 기호의 심층적인 발굴과 혁신적인 응용을 통해 예술가는 전통적 예술의 속박을 깨고, 예술 형식과 내용의 자유로운 탐색을 실현할 수 있다. 괴수의 기호를 통해 사회의 주류 가치관에 도전하고 권위와 규칙에 대한 반항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괴수 기호를 통해 인류 내면의 공포와 갈등을 드러내어 사람들의 생활과 존재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태호석의 존재는 자연의 힘과 지혜를 상징한다. 이러한 상징성의 결합은 작품에 보다 심층적인 내용과 의미를 부여하여 관객의 인간과 자연 관계에 대한 사고와 탐색을 불러일으킨다.

괴수 기호와 태호석의 결합은 조각의 창작에 심오한 문화적 가치를 가진다. 괴수 기호는 각 문화 속에서 독특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태호석은 중국 전통 문화의 지혜와 철학을 담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을 통해 예술가는 전통 문화에 대한 존중과 전승을 나타내며 또한 현대 사회와 관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의 혁신은 예술 작품 속에 구현되어,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을 통해 전통 문화의 기호와 상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문화 요소의 의미

와 가치를 다시 사고하고 해석하게 한다.

괴수 기호와 태호석의 결합은 조각의 창작에서 심미적 혁신성을 가진다. 이러한 결합의 형식은 전통 조각의 표현 방식을 깨고 독특하고 풍부한 매력을 가진 작품을 창조하였다. 예술 작품에 대한 관객의 감상에는 작품이 전달하는 의미와 상징뿐만 아니라 작품의 시각적 즐거움과 심미적 체험이 포함된다. 괴수 기호와 태호석의 결합은 작품에 독특한 형태, 무늬와 질감을 부여하며 관객의 시각과 촉감의 체험을 통해 강렬한 시각적 자극과 정서적 공감을 야기한다. 이러한 심미적 혁신은 작품이 관객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어 예술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

괴수 기호는 전 세계 각 문화 속에 모두 존재하며 인류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 자연에 대한 숭배와 힘에 대한 추구를 대표한다. 태호석은 중국 전통 문화의 일부로써 동양의 철학 사상과 심미적 관념을 담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은 사실 문화를 넘나드는 탐색이다. 이러한 탐색은 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구현될 뿐만 아니라 작품이 전달하는 정보와 가치에도 구현된다. 괴수 기호와 태호석의 결합은 생명에 대한 존중, 자연에 대한 경외와 미지에 대한 탐색 등과 같이 예술가로 하여금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관을 전달하게 한다. 이러한 문화를 넘나드는 탐색은 작품에 보다 광범위한 수용 집단을 갖게 함으로써 작품이 여러 문화 배경에서 인정되고 감상되게 한다.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교류에 따라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괴수 기호와 태호석의 결합은 사실 이런 모호한 경계에 대한 성찰과 탐색이다. 예술가는 전통에 대한 존중과 계승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대에 대한 이해와 혁신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통과 현대에 대한 성찰은 작품에 보다 깊은 사고 차원과 넓은 문화적 시야를 갖게 한다. 이는 고유한 인식에 도전하며 이 두 가지 개념의 관계와 의

미를 다시 사고하고 정의하게 한다.

### 3. 직관적인 인식

본인의 조각 작품은 원시성, 신화와 같은 기호의 재배치 및 각 속성 사이의 ‘혼종’을 융합하여 최종적으로 ‘불언이유(不言而喻)’의 조각 예술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불언이유’라는 사자성어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한다’라는 뜻으로 그 속에는 작품의 원시 예술에 대한 갈망과 동경을 포함하고 있다. 원시 예술과 같이 본인은 자신의 조각품도 언어와 같은 소통의 매개가 되기를 희망한다.

작품 <필방(畢方)>[작품도판 10]에서 우리는 신화적 상징과 시각적 언어의 교류 기능을 통해 그 속에 담긴 깊은 예술적 가치를 탐구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표면의 불꽃 무늬와 얼룩덜룩한 효과를 통해 필방(고대 신화의 신수로 보통 힘과 변화와 연관됨)을 반영하고 있다. 이 조각에서 불꽃은 비방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변화와 정화의 힘의 시각적 표현이다. 이러한 처리 기법은 작품에 동적인 외관을 부여하였으며 마치 조각 자체가 지속적인 변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는데 이는 필방 신화 속 변혁의 힘과 대응된다. 그리고 얼룩덜룩한 효과는 시간의 흔적과 역사의 깊이를 암시하며 관객들에게 필방은 단순히 신화 속의 생물이 아니라 문화 기억의 일부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술 작품은 이미지의 교류를 통해 언어를 초월한 감정과 생각을 전달한다. 본인은 조각의 형태와 질감을 통해 고대와 현대의 상징체를 창조하였는데 이는 단지 관람의 대상이 아니라 관객들의 인식과 내성의 매개체이다. 이 작품은 관객들로 하여금 필방이 대표하는 문화적 의미와 현대 사회에서의 필방의 연관성과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작품도판 10) 연청, 〈필방(畢方)〉, 금속, 3d 프린팅, 도색, 73×20×13 cm,  
2022

1959년, 프랑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는 미술 평론가 샤르보니에(Charbonnier)와 원시 미술과 현대 미술의 특징과 차이에 관한 대화에서 선사시대 미술은 상징과 기호가 언어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심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의미였을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선사시대 미술의 목적은 집단의 생활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기호 체계와 기호에는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하였다. 원시 조각의 재해석, 아프리카 조각과 중국 한나라 석조 예술 속의 원시성과 순수성의 재해석을 통해 동시대의 관점을 밝힐 수 있다. 조각은 재구와 현재 현상의 편집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배경을 유도하여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sup>64)</sup>가 제시한 ‘포스트 프로덕션(Postproduction)’의 개념과 부합된다. 포스트 프로덕션이란 현대 미술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편집’ 또는 ‘합성’ 등의 창작 방식을 일컫는 전문용어인데 현대 미술의 목적은 ‘새로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와 연관된다고 하였다.<sup>65)</sup>

---

64) 니콜라 부리오(1965-)는 프랑스의 큐레이터이자 미술 평론가로, 전 세계의 수많은 전시회와 비엔날레를 기획했다.

65) 김연희. 「차용의 관점에서 본 ‘포스트프로덕션’」, 『예술과 미디어』, 제18권 1호, 2019, pp. 159-178.



작품도판 11) 엔칭. 〈무제〉, 금속, 3d 프린팅, 도색, 60×20×35cm, 2022

본인의 조각 작품은 절대 기교에 의존하여 관객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출현되기 전 선사시대의 창조물과 같이 의도적인 장식이

필요없이 본능과 직관적인 방식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불언이유의 조각’, 즉, 관객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본인의 작업관이자 현대미술에 대한 미술에 대한 본인의 태도이다. 원시 미술과 현대 미술의 비교 및 분석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와 샤프보니에의 대화에서 객관과 실제 문명 사회 속에서 인간의 자만과 응졸함을 지적하였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의 생활은 심각한 곤경에 빠져 있다. 현대 인류 문명은 ‘진보’와 ‘발전’을 이념으로 삼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점점 정확한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다. 우리가 전력을 다해 새로운 문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 과거를 뒤돌아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인의 작품은 전통적 조각 형식과는 다소 다르며 사실적이고 상세한 기술보다는 심층적인 정서와 사상의 표현에 치중하였다. 이 작품들은 형식보다 추상적이고 단순하다. 바로 이러한 추상적이고 단순함이 작품에 보편성과 개방성을 더하였고 관객들의 공감을 더 자아냈다.

<산해경> 시리즈 작품은 전통적인 표현 방식을 깨고 독특한 예술적 언어를 채택하였다. 괴수 언어는 신비함, 원시적 힘을 대표하며 그들은 인류 문화와 상상력의 산물이다. 태호석은 독특한 형태와 무늬를 가진 돌로, 괴수 기호와 유사한 원시성과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다. 양자의 결합으로 독특한 시각적 효과와 상징적 의미를 창조하였다. [작품도판 12, 13]



작품도판 12) 엔청, 〈기우(夔牛) - 신수3〉, 380 × 45 × 80 (cm), 모래, 2017



작품도판 13) 엔청, 〈과보(夸父) - 신수2〉, 100×50×70cm, 모래,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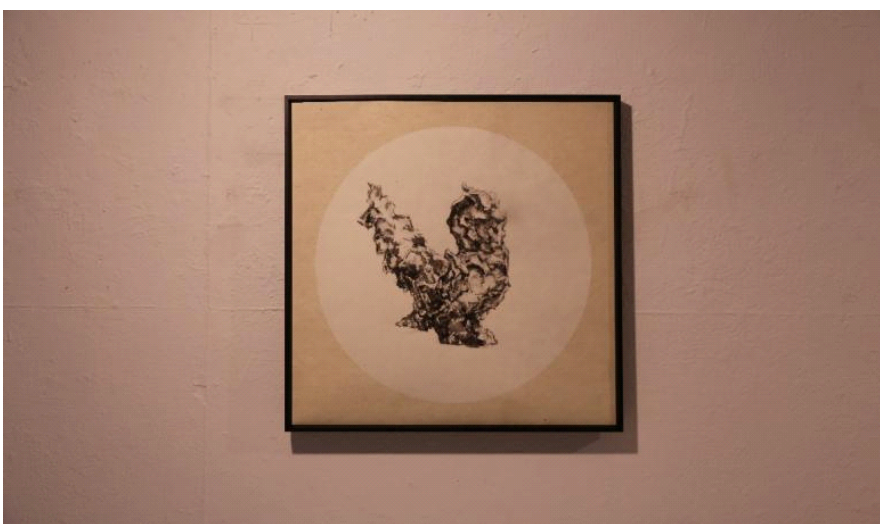
이러한 새로운 결합은 작품의 기호성, 직관성과 원시성에서 구현되었다. 기호성은 작품에서 필수 기호로 대표되는 의미와 상징으로 구현되었으며 관객들은 이러한 기호의 해석과 연상을 통해 작품이 전달하는 보다 심층적인 정보에 대해 사고할 수 있다. 직관성은 작품 형상의 직접성과 공감으로 구현되며 관객들은 시각과 정서의 접촉으로 작품에 표현되는 정서와 사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원시성은 작품이 표현하는 자연에서, 원시성의 힘과 정서는 작품이 전달하는 원시적 지혜와 인류와 자연의 연결에서 느낄 수 있다. 연작 작품은 원시성, 직관성과 기호성의 융합을 통해 직관적인 예술 표현을 나타냈으며 인류 본성, 사회 문제 등 여러 논제에 대한 사고를 유발하였다.



작품도판 14) 옌청, 〈기우-Mythical Animals III〉  
수묵화, 50×50cm 2023



작품도판 15) 엔청,〈형천-Mythical Animals IV〉  
수묵화, 50×50cm 2023



작품도판 16) 엔청,〈과보-Mythical Animals II〉  
수묵화, 50×50 cm, 2023



작품도판 17) 엔청, 〈정위-Mythical Animals I〉  
수묵화, 50×50 cm, 2023

## V. 결론

본 연구는 현대 조각의 시점으로부터 신화 및 기호의 사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독특한 예술 형식으로써 현대 조각은 물질의 형상화일 뿐만 아니라 정서, 사상 및 문화의 구현이기도 하다. 전무후무한 도전 및 기회에 직면한 현시대 조각가들은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진정한 가치를 지닌 조각 작품을 창조해야 한다.

현대 미술에 사용된 신화와 기호는 현대 사회에 대한 예술가들의 성찰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탐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었다. 인류 문화의 한 부분으로써 신화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해석을 담고 있다. 신화는 오래된 서사으로써 생명, 우주 및 존재에 대한 인간의 기본 관념을 반영하며 기호는 특정된 의미를 대표하는 표지 또는 물체으로써 일종의 형태, 색채, 소리 또는 기타 사물이 될 수 있다. 현대 미술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특수한 언어로 간주하여 왔다. 이들은 표면적인 장식일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깊숙히 담겨 있는 메시지를 제시한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 문화, 공포, 욕망, 또는 우리와 세계의 관계일 수도 있다. 이런 요소들은 예술가들에게 풍부한 창작 재료를 제공하여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을 창작하도록 하였다.

조각가는 특정 신화 속의 형상 또는 신화 이야기를 사용하여 현대 사회에 대한 태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나 이야기는 창세, 영웅, 신, 또는 기타 신화 인물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술가는 오래된 옛 이야기를 전달하는 동시에 현대 사회에 나타난 문제나 현상에 대한 탐구한

다. 이와 같이 신화와 기호를 통해서도 예술가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즉 단순한 형상 또는 색채로써 특정된 정서, 상태나 철학적 관념을 상징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표현기법일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또는 탐구방식이기도 하다.

초현실주의 조각은 예술적 형식이라기보다는 철학적 관념에 더 가깝다. 이는 현실에 대한 재현일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에 대한 재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탐색은 시각적인 것보다 사상과 정서에 더 집중되어 있다.

전통적인 예술 요소인 아키타이프 역시 모더니즘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응용되었다. 모더니즘에서의 아키타이프는 형식일 뿐만 아니라 사상이기도 하다. 이는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담겨진 원시적, 본능적인 존재로써 인간의 정신 및 감정 세계의 일부이다. 아키타이프를 통해 예술가들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그 속에 담겨진 진실과 의미를 밝힐 수 있다.

신화 기호는 특수한 언어로써 예술가들에게 독특한 창작 수단을 제공하였다. 신화 기호는 일종의 형태, 색채, 소리 또는 기타 사물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호들을 통해 예술가들은 정신과 감정 세계에 대한 이해를 표현할 수 있고 사회 문화에 대해 반영할 수 있다.

신화와 기호는 긴 미술사의 발달 과정에서 줄곧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는 고전 이야기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세계, 생명 및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해석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화와 기호는 일반적으로 보편성과 다문화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객들에게 공통한 해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동양이나 서양,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러한 신화와 기호 속에서 공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시공간을 넘나드는 정서와 사고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생활 경험과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과 체험을 갖게 된다. 이런 다원성으로 말미암아 예술은 개방적인 영역으로 되어 모든 관객들이 자신만의 위치를 찾아 자신의 정서를 느끼고 사색 하게끔 한다. 이 역시 본인이 미술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추구하는 바이다. 마리노 마리니, 권진규, 호아 미로 우고, 론디노네 등 예술가들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인은 신화와 기호의 매력이 깊어 느끼게 되었다. 이들은 표현 기법일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이자 탐색 방식이기도 하다.

본인은 자신의 작품이 다원적인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관객들의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관객들에게 사색의 공간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이는 예술의 순수함 뿐만 아니라 관객들과 깊은 정서적, 심적 연결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결이 형성됨으로 하여 예술은 더 이상 냉혹한 대상이 아닌 생명과 감정이 넘치는 존재로 된다.

또한 아프리카 조각과 중국 한나라 시대 석조에 나타난 신화와 기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대 조각에서 사용되는 신화, 원시 및 기호에 대한 본인의 이해를 한 층 더 높이게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예술가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창작 재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해석과 성찰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는 특수한 언어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예술가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한다.

예술가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은 창작 뿐만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사색의 시간을 갖게 하며 그들과 깊은 정서적, 심적 연결을 맺는 것이다. 예술은 표현일 뿐만 아니라 교류이며 대화이기도 하다. 오로지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 깊은 정서적, 심적 연결이 형성되어야만 예술의 진정한 가치와 의의를 실현하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신화와 기호는 현대 조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표현 기법일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이자 탐구 방식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예술가들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깊이 숨겨져 있는 진실과 의미를 밝힐 수 있다. 더불어 관객으로서 우리는 이런 작품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 시공간을 넘나드는 감정과 사고를 느낄 수 있게 된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김교빈,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 인문콘텐츠, 2005.
- 김석. 『한눈에 보는 조각사: 원시조각에서 설치미술까지』, 지앤씨 미디어 출판사, 2005.
- 김태형. 『거장에게 묻는 심리학』, 세창미디어, 2012.
- 박일봉. 『산해경』. 육문사, 1995.
- 송령. 『음양오행학설사도론』, 문예출판사, 1989.
- 왕춘진. 『예술의 종결 이후: 현대예술과 역사의 경계』, 강소인민출판사, 2007.
- 윙. 『집단 무의식의 개념』. 풍천(川)편역, 개혁출판사, 1997.
- 이일. 「아프리카 미술의 정체(正體)」, 「아프리카 미술전」 도록, 중앙일보사, 1987.
- 장광직. 『신화미술제사』, 이철 역, 동문선출판사, 1998.
- 찰스 웨턴크, 『원시미술과 현대미술』, 문하출판사, 1995.
- 최열. 『권진규』. 마로니에북스, 2011.
- 프라이, 노스립.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0.
- 호안 미로, 『상징의 세계』. 경기도미술관, 2006.

## 학술지 및 연구논문

- 권진규. 미술세계선정 이달의 작품 「손」, 더원미술세계, 1985.
- 김미주. 「요루바 머리탈(Yoruba Headdress)을 통해서 본 아프리카의 예술」, 예술연구.
- 김연희. 「차용의 관점에서 본 ‘포스트프로덕션」, 『예술과 미디어』, 제 18권 제1호, 2019.
- 김지영, 손현. 「동서양시에 나타난달의이미지비교연구- 중국의서정적상상력과 서양의신화적상상력을중심으로」, 『중국학보』, 제100호,2022
- 김현숙. 「권진규 조각의 형식 또는 양식의 근원에 대한 고찰 - 아르카이즘과 리얼리즘 사이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사학』, 2022.
- 나경수. 「반구대 암각화의 신화학적 해석 가능성」, 『한국암각화연구』, 2012
- 박성일. 「시각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원형적 심상에 관한 연구: C.G.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을 중심으로」, 『論文集 14』 1996.
- 서경호. 「산해경 소고」, 『중국문학』, vol.6, 1992.
- 이귀열, 「미로」, 『세계미술문고』, 금성출판사, 1976.
- 이동원. 「상감문학 아함 시의 자연 상징 연구: 프라이의 원형비평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2018 .
- 이영희. 「World Topic/해외미술\_ France〈 THE THIRD MIND〉-우고론 디노네의 작가들」. 『더원미술세계』, 2007
- 이원숙. 「권진규 조각에 표현된 변형과 들뢰즈의 “되기”이론」, 『동양예술』, 26, 2014.

- 이원숙. 「권진규 조각의 방법론에 나타난 사건과 우연성」, 『기초조형학 연구』, 제13권 제6호, 2012.
- 이은주, 「1930년대 초현실주의 전시를 통해 본 초현실의 사회적 의미」, 『미술사와 시각문화』, vol. 19, 2017.
- 임정숙. 「Northrop Frye의 신화비평체계」, 미학, 제8권, 1982.
- 장성민. 「근대철학에 나타난 반이성주의: 파스칼의 데카르트 비판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21』, 2007.
- 조원일. 「장자(莊子)의 천인합일(天人合一)사상 연구」, 『동양문화연구』, 30, 2019.
- Campbell C, Montgomery R, Exley R. Sam Durant, Maria Lindberg Michael Ashkin. FLASH ART-INTERNATIONAL EDITION, 2000.

## 외국어 문헌

- Alzmann, Daniel, et al. *Surréalisme et Arts primitifs: un air de famille*. Hatje Cantz Verlag, 2014.
- Cassirer, Ernst. *Symbol, Myth, and Culture: Essays and Lectures of Ernst Cassirer, 1935-1945*. 1979.
- Fraser, D., Adrian, A., , G., Klausen, A. Lewis, P., , T., & , P. . Discussion of a Problem Posed by Adriaan G. H. Claerhout: The Concept of Primitive Applied to Art. *Current Anthropology*, 1965
- Jaworski, Adam. *EAT, LOVE and other (small) stories: Tellability*

- and Multimodality in Robert Indiana's Word Art. Routledge, 2019.*
- Sheahan, L.C. Robert Nisbet: Art, History, and the Anti-Rationalism of Sociological Methodology. In *Critics of Enlightenment Rationalism Revisited*, 2022
- Strick, Jeremy. "Foreword." Sam Durant. Eds. Lisa Mark, Jane Hyun, and Elizabeth Hamilton. MOCA, 2002.
- Jung, Carl Gustav.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Routledge, 2014.*
- Jung, Carl Gustav. *The Concept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The Collected Works of C.G. Jung.*
- Keough, Jeffrey. "Curators Foreword." *Sam Durant: Scenes from the Pilgrim Story: Myths, Massacres and Monuments.* Massachusetts College of Art, 2007.
- Marini, Marino, Helmut Lederer, and Eduard Trier. *The Sculpture of Marino Marini.* 1961.
- Frye, Northrop.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Wingert, Paul Stover. *Primitive Art Its Traditions and Styles.*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 Torgovnick, Marianna. "Making Primitive Art High Art." *Poetics Today*, 1989.
- Watkins, Nicholas. "From Fascism to the Bomb: Marino Marini and the Undermining and Destruction of the Classical

- European Horseman." *Myths of Europe*. Brill, 2007.
- ArthurC.Danto, 王春辰译. 『艺术的终结之后:当代艺术与历史的界限』, 江苏人民出版社. 2007.
- 布罗莎伊. 杨元良译. 『与毕加索的对话』, 湖南文艺出版社, 2000.
- 陈建翔. 「爱情本体论和爱的教育」, 『中华家教』, 2021.
- 亨利.摩尔, 何振仪译. 「原始艺术」, 『文艺研究』, 1988.
- 孟继乐. 「武陵石刻艺术」, 『安徽文学(下半月)』, 2010.
- 荣格, 冯川 译. 「集体无意识的概念」, 『荣格文集』, 北京改革出版社.1997.

## 웹사이트

- <https://www.theartstory.org/movement/hard-edge-painting/>(최종 검색 날짜:2023.9.27.)
- <https://www.bu.edu/sthlibrary/files/2016/05/Robert-Indiana-Exhibition.pdf>(최종 검색 날짜:2023.10.11.)
- <https://archiveofdestruction.com/artwork/scaffold/>(최종 검색 날짜: 2023.8.27.)
- <https://history-of-art.tistory.com/1>(최종 검색 날짜:2023.7.10.)
- <http://brainartkid.com/community04/1013>(최종 검색 날짜: 2023.10.8.)
- <https://www.zdic.net/hans/%E7%8B%B0>(최종 검색 날짜: 2023.9.8.)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Clement-Greenberg>, (최종  
검색 날짜 : 2023.11.8.)

[https://static.frieze.com/files/event/press/2020-09\\_PR\\_Rondinone\\_](https://static.frieze.com/files/event/press/2020-09_PR_Rondinone_EN_2.pdf)  
EN\_2.pdf (최종 검색 날짜 : 2023.11.19.)

[https://www.kukjegallery.com/upload/press/pr\\_earthing\\_2b80ecc4a](https://www.kukjegallery.com/upload/press/pr_earthing_2b80ecc4a6.pdf)  
6.pdf. (최종 검색 날짜 : 2023.11.30.)

## **ABSTRACT**

### **A Research on of Primitive Mythical Symbols and Images - Focused on Researcher's Sculpture -**

Yan Cheng  
department of Sculpture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n this research, the use of myths, primitive elements, and symbols in my sculptures is examined, and the combination forms of sculptures and sculptural figures are discussed. In modern art, myths and primitive elements are reflections of contemporary society by artists and an important means for them to explore the collective unconscious of humanity. This research allows for an examination of the creative ideology behind my sculptures.

Chapter 1 describes the use of myths and primitive elements in contemporary art. These elements, as a special language, excavate and express messages hidden in

the collective unconscious of humanity through reflection on contemporary society. Modernism and Primitivism have provided artists with new techniques and directions for theme selection by challenging traditional creation methods, and Surrealist sculptures and archetypes have revealed the existence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through depictions of the inner world based on a unique visual language. Contemporary sculptures express the artists' deep understanding and criticism of societal phenomena and human nature.

In Chapter 2, the theories of Carl Jung and Northrop Frye are analyzed, focusing on the collective unconscious, archetypes, and myth criticism. Jung emphasized the collective unconscious as playing a central role in human psychological activities and recognized archetypes as the basis of human thought and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ry criticism, Frye viewed archetypes and myths as key elements that present the deep meanings of literary works.

Chapter 3 reviews the previous studies on the works of artists such as Marino Marini, Kwon Jin-gyu, Joan Miró, and Ugo Rondinone, describing their influence on my work and the insights they provided to me. These artists expressed their understanding of the spiritual and emotional worlds through mythical symbols in their works, reflecting their perceptions of sociocultural phenomena. For instance, the works of Marino Marini and Kwon Jin-gyu demonstrated an understanding of mythical symbols, while Miró's work expressed a perception of pure nature through its symbols, and Rondinone's work incorporated primitive symbols into modern society.

In Chapter 4, my artworks a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primitive sculptures, African sculptures, and stone sculptures from the Han Dynasty in China. My artworks also contain elements of myth and symbols, and through this artistic language, I aimed to express my perspectives on humanity, nature, and society. This thesis deeply explores the image-narrative style of the Shan Hai Jing (山海經), seeking three expression methods: the combination of humans and animals, animal-animal combinations, and the combination of symbols and materials. This unique expression style has provided new perspectives and techniques in my creative process and better presented the complexity and contradictions of human nature.

This study discusses in detail the deep meanings of myths and symbols in my artworks and how myths and symbols influence audiences' interpretation and reflection on artworks. My artworks contain multiple layers of symbolism, forming a complex and profound visual narrative structure. For example, individual images of flora and fauna are used to symbolize specific cultural or historical backgrounds or express certain emotions or psychological states. These symbolic elements are not intuitively fixed and sometimes require the audience's continuous exploration and deep reflection.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s how audience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interpret artworks differently. Generally, myths and symbols have universality and multiculturalism, providing a certain framework for interpretation,

but individual life experiences and cultural backgrounds lead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and experiences within that framework. This aligns with what I, as an artist, strive for in my work. I hope my artworks evoke diverse interpretations, provide a space for contemplation, and elicit emotional resonance in the audience.

Completing this research has deepened my understanding of the use of myths, archetypes, and symbols in contemporary sculpture. These elements not only provide artists with rich and diverse creative materials but also offer audiences opportunities for interpretation and reflection.

As an artist, my responsibility is not only to create but also to engage the audience in contemplative moments and establish deep emotional and mental connections with them. This research is both a deep analysis of my artworks and a systematic exploration of the use of myths, primitivism, and symbols in contemporary sculpture.

Keywords: Myth, Symbol, Archetype, Primitivism, Hybridity, Shan Hai Jing